

군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통설교  
: 연무대군인교회 주일학교 사례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남영숙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1년 5월

Copyright © 2021 Youngsuk Nam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Tong Sermon for Children at a Military Church**

: A Case Study of Sunday School in Korean Army Training Center Church

Youngsuk Nam

Korean Army Training, Nonsan, Korea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examine the methods of teaching the Bible for children who attend military churches. Children who attend military churches are exposed to poor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y have no choice but to move every time their parents are relocated. Also, military churches are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senior soldiers, meaning that the education of kindergartens and children are often less prioritized or sometimes neglected. This can be seen in the statistics of low numbers of Bible teachers and pastors for children. Recognizing that this is a major problem, I have studied the methods to effectively teach the Bible for children who attend military churches.

The text that I used was 'Tong Bible for Children' and I set aside two years to practice this with children. This project reports on the methods that were used to teach the Old Testament for one year and then the New Testament for another year.

One of the teaching methods used was 'Reading the Bible' which is part of the Tong Sermon program. This method stresses that although listening to sermons is important, it is essential to read the Bible using one's own voice. The following steps were taught: first, to read the Bible out loud. Second, to record the reading onto one's mobile phone and post it on a group chat. Third, to read the Bible together as a

community. Fourth, to compliment and encourage one another to continue. The purpose of such steps were to create an atmosphere of reading together and to make the Bible reading enjoyable.

Another step I expected from the children was to think about the stories within the Bible and to reproduce the Tong Bible story. For example, a section was made specifically to study the story of Moses in the Pentateuch within the Old Testament. The six categories that emerged were: 'The Law of Creation', 'Follow the Path of Exodus', 'The Law of Food', 'The Law of Meeting', 'The Law of Obedience', and 'The Law of Fair Distribution.' The overall aim of this method was to encourage children to embrace the whole Bible as One Story and to consider the Heart of God. The motivation of conducting this study was to provide practical help that is active and systematic to children in military churches

국문초록

**군인교회 어린이를 위한 통설교**

: 연무대군인교회 주일학교 사례연구

남영숙

연무대군인교회, 충남, 한국

본 논문은 군인교회 어린이들에게 군인을 위한 교회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육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인교회의 교육 환경은 열악하다. 우선 군인인 부모가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거주지를 이동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한다. 더구나 군인에게 집중된 군인교회의 특성상 유치부나 아동부의 교육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가장 열악한 요소는 교역자의 부족으로 전문가의 지도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1년 내지 2년 동안의 시간동안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성경 전체를 이야기로 들려주기 위해 『어린이 통성경』 교재를 채택하여 1년동안 구약성경을 그리고 나머지 1년 동안 신약성경을 이야기로 들려 주었다.

한편 통성경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성경 읽기’ 를 함께 진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각자가 스스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게 함으로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더 확실히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는 첫째, 음성으로 읽기 둘째, 휴대전화로 녹음해서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 셋째, 공동체가 공유하여 함께 읽어나가는 분위기 만들기 넷째,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여 계속 유지하기 등이다. 이것은 여러모로 다 함께 해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교회 공동체 자체에 큰 도전과 즐거움이 되었다.

통성경 이야기를 재현해서 경험하게 함으로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먼저 구약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창조의 법칙’,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가요’, ‘식량의 법칙’, ‘만남의 법칙’, ‘순종의 법칙’, ‘공평분배의 법칙’ 등 여섯 개의 코너 학습을 기획하여 말씀과 놀이로서 재현하였다. 어린이들은 특별로 각 코너를 돌면서 각 코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 가치들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게 됨으로서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사는 실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학습의 목표이다.

본 논문이 특수한 상황에 놓인 군인교회 어린이들에게 실제적이고 유익한 설교와 행동학습을 통해 잘 양육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일반 교회의 어린이들에게도 다각적인 학습과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목 차

감사의 글 .....	xii
표 목차 .....	x
그림 목차 .....	xi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II. 군인교회의 이해 .....	5
군인교회 교역자의 부족 .....	5
군인교회 구성원 .....	5
군인교회 신앙의 어려움 .....	6
군인교회 어린이 현황 .....	7
연무대 군인교회의 현황 .....	9
III. 어린이 설교 연구 .....	12
어린이 설교의 변화의 필요성 .....	12
아동발달과 신앙 .....	13
재미있는 설교 .....	14
스토리텔링 .....	16
뇌과학과 설교 .....	18
어린이 설교의 중요성 .....	20
IV. 군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통설교 .....	24
통성경의 정의 .....	24

통설교란? .....	29
통설교의 필요성 .....	34
통설교 진행 .....	36
통설교의 내용 .....	41
<b>V. 통성경 읽기 .....</b>	<b>62</b>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	62
어린이 성경 읽기 .....	64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만한 책이다 .....	67
성경 소리내서 읽기 경험 .....	67
묵독 말고 소리내서 읽기 .....	69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성경읽기 .....	72
성경읽기가 가져온 변화들 .....	76
<b>VI. 통성경 체험학습(행동학습) .....</b>	<b>85</b>
여름성경학교 기획의도 .....	85
체험학습 준비 .....	87
여름성경학교 코너학습의 실제 .....	98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	108
설문과 소감 .....	111
설문지 .....	111
어린이들의 소감 .....	113
교사들의 소감 .....	114
<b>VII. 결론 .....</b>	<b>115</b>



요약 및 평가 .....	115
제언과 결론 .....	117
부록 .....	120
참고문헌 .....	127

## 표 목차

<표1> 통설교 진행과정 .....	35
<표2> 인구조사 결과 .....	42
<표3> 기독교 10대 박해 .....	56
<표4> 통성경 읽기 기록표 - 마태복음 .....	75
<표5> 통성경 읽기 기록표 - 마가복음 .....	76
<표6> 이선 어린이 성경읽기 녹음파일 오독 분석표 .....	79
<표7> 18년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기획안 .....	90
<표8> 코너학습 준비 - 여리고성 성벽 만들기 .....	94
<표9> 코너학습 준비 - 여리고성 모퉁이 탑 만들기 .....	95
<표10> 코너학습 준비 - 언약궤 만들기 .....	96
<표11> 12지파 땅 분배 퍼즐 만들기 .....	97

## 그림 목차

<그림1> 대화 앱을 사용한 성경읽기 녹음 파일 공유 .....	74
<그림2> 코너학습 준비-창조의 법칙 .....	91
<그림3> 코너학습 준비-식량의 법칙 .....	92
<그림4> 코너학습 준비-만남의 법칙 .....	92
<그림5> 코너학습 준비-성벽 컷팅 .....	94
<그림6> 코너학습 준비-성벽 윗부분 컷팅 .....	94
<그림7> 코너학습 준비-성벽기둥 만들기 .....	95
<그림8> 코너학습 준비-여리고성과 언약계 완성 .....	95
<그림9> 코너학습 준비-공평의 법칙, 땅 분배퍼즐 .....	97
<그림10> 코너학습1-창조의 법칙에 임하는 자세 .....	99
<그림11> 창조의 시간-창조순서 그림 배열을 고민하는 1학년 어린이 .....	99
<그림12> 출애굽 경로를 따라가요 .....	101
<그림13>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였더라? .....	101
<그림14> 식량의 법칙 .....	102
<그림15> 만나는 하루 한 호멜 .....	103
<그림16> 만남의 법칙-성막을 만들어요 .....	104
<그림17> 완성된 성막의 모습 .....	104
<그림18> 여리고 성을 돌아요 .....	106
<그림19> 무너진 여리고성 .....	106
<그림20> 공평의 법칙-땅분배 .....	107
<그림21> 우리 땅은 어디에? .....	108

## 감사의 글

3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학공부는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7년의 시간은 저에게 축복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시간 새롭게 배우는 신학의 세계는 저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육전도사에서 전임전도사로, 그리고 안수를 받아 부목사로 사역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돌아가려 할 때 붙잡아 주시고 권면해 주신 김기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약9년의 낭월교회 사역을 마치고 개척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연무대 군인교회 김택조 목사님의 청원과 여전도 전국연합회의 파송으로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성경을 알게 되었고 아동부와 청소년부에 통설교를 적용하게 된 것이 본 논문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을 살았다 말할 수는 없으나 적지 않은 시간동안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훌륭한 스승님들, 특히 2년 가까이 설교 모임을 통해 신학적 성장을 도와주신 최성수 교수님, 그리고 항상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는 동기들. 더 많이 사랑해야 하지만 언제나 더 많은 사랑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이 있어서 부족하나마 이 논문을 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약한 나를 돌아보시고 마음 깊이 품었던 마음의 소원들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로 제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 많은 영감을 주신 조병호 박사님, 새로운 성경적 감수성(?)에 눈뜨게 하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 언제나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남영숙

## 제 I 장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7년 11월, 처음 연무대 군인교회에 부임할 때 당시 군인교회 담임목사인 김택조 목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군인교회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좀 먹여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목사에게 당연한 일을 새삼 강조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잠시 후 설명을 통해 알게 된 건, 군인교회의 어린이들은 일반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비해서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군인교회는 일반 교회와 다른 특수한 환경 속에 있다. 첫째, 교역자 수가 전체 교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교인이 군인 중심이다. 셋째, 교인이 정기적으로 바뀐다. 여기에는 군목의 정기적 보직 이동도 포함된다. 넷째, 군대의 계급 체계가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작용한다. 다섯째, 교회의 사역이 군인 중심이다. 한편으로는 특수 환경에 맞는 목회가 실천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인교회의 특수 환경은 성도들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느끼도록 하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교회학교(아동,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교역자 수의 부족은 어린이 전담 사역자의 부재로 이어지고, 부모의 잦은 근무지 이동에 따라

함께 이동해야 하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신앙교육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주로 군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사역은 어린이 교육을, 그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고 또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소홀히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인교회의 특수 환경에서 어떻게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주어진 시간 안에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 아이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방법은 없을까? 필자가 연무대 군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초기부터 고민해야만 했던 질문이다.

###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래서 선택한 설교 방법이 ‘통성경 설교’이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필자는 다섯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 성경 전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지에 관해 함께 생각해본다. 넷째, 어린이가 직접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게 한다. 다섯째, 성경 이야기를 체험학습으로 실현해본다.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통성경 설교를 교회학교에 적용하면서 특별히 중점을 둔 점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침과 동시에, 그들이 직접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이다. 미디어 기기에 익숙하고 이미지 문화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문자로 된 성경을 읽도록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사실 성경은 어른들도 읽기가 쉽지 않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읽어야 할 양이 만만치 않고, 또 성경 시대의 문화가 현대와 달라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이는 이해가 어렵다. 그리고 성경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맥락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성경 일독 자체가 어렵지만, 설령 끝까지 일독을 한다 해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어체와 문어체의 성경 용어들은 성경 이해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 성경은 반드시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사는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골동품이 소장 가치는 있으나 실제 현실의 삶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여러 특수한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최선의 길은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린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이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나는 성경을 지식적인 학습으로 그치지 않고 성경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행동 학습을 기획해보았다. 창조의 날 일곱 가지 그림과 성경 말씀의 매치 게임, 대형 출애굽기 지도 앞에서 출애굽 여정에 관한 퀴즈를 풀고, 그 퀴즈를 정답 위치에 젤리 공을 던져 맞추는 출애굽 게임, 성막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만나와 비슷한 모양의 과자를 뿌려 놓은 장소에 가서 매일 한 호멜의 만나를 줍고, 7일째는 두 호멜의 만나를 줍는 게임, 여리고 성 모형을 만들고 그 성의 주위를 매일 한 바퀴 언약궤를 매고 도는 순종의 게임, 공평한 땅 분배의 법칙 등을 지도 퍼즐을 맞추며 익히는 제비 뽑기 게임 등을 통해 성경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가 기대한

것은,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성경의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접근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에서 배운 바를 통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 연구는 1년 동안(2018~2019) 연무대 군인교회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한 통성경 설교와 상반기 동안 진행된 구약성경의 ‘제사장 나라’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여름 성경학교 체험학습, 그리고 한편으로 진행했던 ‘성경 소리 내서 읽기’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배우고 느끼고 변화한 현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교회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통성경 설교를 바탕으로 진행된 결과물이다.



## 제 II 장

### 군인 교회의 이해

#### 군인교회 교역자의 부족

현재 우리나라 군부대 소속 군인교회는 약 1,004개의 교회가 있으며 군인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는 10개 교단 파송 군종목사 260명과 대대급 교회에서 사역하는 민간인 군선교교역자 621명이 있다.<sup>1</sup> 위의 사실에서 볼 수 있듯 교회 수보다 군종목사가 턱없이 부족하여 군단과 사단이나 여단 그리고 연대교회 등 큰 규모의 군인교회에 우선 배치되고, 그 외 대부분의 군인교회는 한 명의 목회자가 2~3개의 교회를 섬긴다. 대부분 대대급 교회에는 MCF(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나 군인 가족 성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있으나 목회자가 없는 것이 성도가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군종목사가 없는 교회를 군선교사로 사역하는 민간인 목회자가 채워주고, 민간인 군선교사조차 없는 교회는 군종사병들이 교회사역을 전담하기도 한다.

#### 군인교회의 구성원

군인교회 구성원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현역군인 중심이고, 둘째, 교인이 자주 바뀌며 셋째, 교인들 사이에 계급의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

<sup>1</sup> <http://www.c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4> (2020년9월1일 접속).

군인교회의 구성원은 장교, 부사관, 전문하사, 그리고 사병이다. 여기에는 군인 가족들과 전역 군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다. 군인교회 성도들은 전역하면서 대부분 군인교회를 떠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는 군 선교의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던 교회에 가족과 함께 남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서 군인교회는 군인과 군 관련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군인교회 성도들은 군인 가족의 특성상 잦은 전출과 전입으로 그 구성원이 자주 바뀐다. 군 신분의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장교는 2년 내지 1년 주기로 또는 보직의 변화에 따라 부대를 이동한다. 부사관은 대체로 한 부대에서 비교적 10년 이상 근무하기도 한다. 또한 신우들은 최근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18개월 남짓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병사들인데, 군 입대 전 신앙을 가지고 있던 병사들과 군 입대 후 신앙을 갖게 된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 군인교회의 신앙의 어려움

군인교회 성도들의 잦은 이동은 지속적인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핵심 요인이다. 보직 이동에 따른 잦은 전출입과, 신우들의 경우 주말 외박 허용과 휴가 등으로 인해 군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군인교회는 계급사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군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이직률이 낮은 부사관이나 단기 간부 등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부사관들은 대부분 민간 교회에 출석한다. 그들이 군인 교회를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군대의 연장’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휴일에 교회에서까지 계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민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다.

군인교회의 부사관은 종종 중요 임직에서 제외된다. 군인 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철저한 계급과 명령체계로 된 곳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서 부대와 교회 간의 지원 목적으로 대부분 계급 위주의 임직원을 뽑는다. 계급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대부분의 부사관은 군 교회에서 소외되며, 그래서 교회 조직 안에서 정착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군인교회는 담임 군목이 2년에 한 번씩 바뀐다. 짧은 이동 주기로 인해 군목이 바뀔 때마다 목회 방식이 바뀌므로 성도들이 겪는 혼란이 적지 않다. 주로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사역을 보다 보니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성도들은 주기적으로 새 신자 신분으로 전락해 새로운 목회자의 목양방식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

### 군인교회 어린이 현황

군인 교회의 어린이들은 군인 가족의 특성상 잦은 전출과 전입으로 인해 체계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다.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는 당연하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목회적 관점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앙 자체에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말할 순 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군인 가족은 한 부대에서 지휘관이 아니고 참모로 근무하면 2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통상 1년이 지나면 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의 어린이 교회학교 교육은 보통 3년, 4년, 또는 6년 주기로 짜여 있다. 더구나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도 교단마다 다르고 군 교역자들의 소속 교단도 다르다. 사역자가 바뀔 때 따라 교재의 선택도 교육의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린이는 어른과 달리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 부모의 잦은 이동으로 학교와 교회의 환경이 새롭게 다가올 때마다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불안과 부적응의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군인 교회의 어린이들의 잦은 이동만큼이나 교사와 목회자의 잦은 이동도 신앙교육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다. 교회의 이동이나 사역자의 이동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말씀 교육을 위해 전체 군 교회가 통일된 어린이 교육 교재를 선정하여 교육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러기에 열악한 군 교회의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아동교육에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 할 수 있다.

군인 교회 어린이 교육이 직면한 문제의 두 번째는 교회사역이 주로 군 간부와 병사들에 집중된 것이다. 2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비전 2020을 비롯한 군 선교의 역사는 훈련소에서 세례 신자의 수를 늘리는 것과 아울러 자대 배치 후 대대급 교회에서 지속적인 양육이 되어 사회로 배출한다는 큰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병사 신우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 받고 신앙 훈련을 받은 병사가 제대 후 기독교 신자로 사회로 나가, 그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청년부의 주축이 되도록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는 것은 군 선교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목표이다. 이를 위해 군 교역자는 주로 성인을 위한 사역에 집중함에 따라 군 교회의 어린이 교육은 자연스럽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군인교회 어린이 교육의 어려움 세 번째는 기독교 교육 전문가 또는 아동 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다. 군인교회 담임 목회자는 교회와 일반 사무 업무를 담당하기에도 사실 여력이 부족하다. 아동교육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목회자가 없는 대대급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운영하기란 더욱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현신된 교사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군인교회의 병사를 위한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군인교회 어린이 교육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심지어 정책적인 이유로 많은 현역군목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이며, 군중 병과의 폐지까지 회자하고 있는 정황<sup>2</sup>을 볼 때, 변화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군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군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인교회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

## 연무대 군인교회의 현황

### 군선교의 요람

연무대 군인교회는 육군 훈련소 내에 위치한 교회이다. 연무대 군인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 첫째 훈련병들이다. 연무대 육군 훈련소에는 매주 1,500명~2,000명의 훈련병이 입소하여 5주간 훈련소에 머물며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다. 훈련병들은 일요일이 되면 각 종교시설을 선택하여 종교행사에 참여한다. 이들 중 교회를 선택하여 주일 오전에 군인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훈련병이 5,000명~7,000명 오후에 3,000명~5,000명이다. 과거 예배당은 2,000석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훈련병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예배해야만 했다. 이에 예배당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 선교 연합회와 각 교단과 교회, 그리고 개인의 헌금으로 2019년 5,000석 규모의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연무대 군인교회는 5주 동안 훈련을 받으며 훈련소에 머무는 훈련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기독교신자로 군복무 하도록 돕는 역할을 주 사역으로 한다. 훈련병들은 5주 예배를 통해서 예배·선교·봉사·헌금·교제에 관해 배우게

<sup>2</sup>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83>, (2020년9월5일 접속).

되는데, 원하는 자는 입소 3주째 되는 주일에 세례를 받는다. 이를 위해 각 교단과 선교단체가 섬기고 있으며, 연무대 군인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함께 도와 매년 20~24회 연간 7만 명이 진중 세례를 받는다. 대단한 숫자다. 이중 대다수의 훈련병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 ‘군선교의 요람’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훈련병 예배를 위한 사역

5,000여 명의 훈련병들이 군인교회에서 예배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군인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훈련병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해주는 훈련병 통제팀, 찬양 인도를 담당하는 찬양팀, 음향과 영상을 담당하는 미디어팀, 예배 후에 훈련병들에게 나누어 줄 간식을 준비해주는 간식 팀, 훈련병 인사를 담당하는 분대장들을 따로 관리하고 간식을 지원하는 분대장 지원팀, 주일 세례 지원팀, 예배당 내 질서를 담당하는 예배 지원팀, 그리고 예배와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담당하는 중보기도팀 등에 많은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을 누가 담당하겠는가? 바로 군인교회 가족들이다. 교회 가족들은 군 간부와 가족들, 지휘관과 가족들, 그리고 예비역과 그 가족들, 민간인 군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다. 이들이 교회를 함께 섬기며, 훈련병 예배와 한 달에 두 차례 진행되는 진중 세례를 지원하고 있다.

#### 진중 세례식을 위한 사역

세례식은 군인교회의 집중 사역 중 하나이다. 진중 세례식은 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2회 진행한다. 세례식 한 번에 약

3,000~4,000명의 훈련병이 세례를 받는데, 이러한 예식은 교회나 단체의 지원, 군인교회 성도들의 봉사, 그리고 훈련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연무대 군인교회에는 담임목사와 입영 심사대 목사, 그리고 민간인 군 선교사 두 명, 총 4명의 교역자와 2명의 군종, 한 명의 사무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힘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군 교회 목회가 주로 훈련병들에게 집중되다 보니 군인교회 가족들은 목회적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형편에서도 군인교회의 성도들은, 군인교회가 군 선교를 위한 선교적 목적이 강한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것이 군인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특수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군인교회에 남는 이유이기도 하다.

## 제 III 장

### 어린이 설교 연구

#### 어린이 설교 변화의 필요성

교회, 어린이가 좋아할 수 없을까?

얼마 전 유튜브에서 봤던 한 장면이 생각난다. 한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았다. 분홍색 백팩에는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와 디즈니 캐릭터 잠옷, 티셔츠 등등의 선물이 가득 들어있었다. 어린이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했고 이것이 다 자기 것이냐며 감격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고 싶은 곳이 없느냐?” 고 어린이의 엄마가 물었다. 어린이는 조심스레 ‘디즈니랜드’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의 엄마는 “그래 가자” 라고 무심히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당장 가자” 라고 말하자 어린아이는 얼굴이 터질 듯 상기되어 “정말? 지금 당장?” 이라고 물었다. “그렇다” 라고 어머니가 말하자 아이는 그만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다. 너무 좋은 나머지 소리까지 지르며 감동의 눈물을 쏟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이 교회에 갈 때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주일 아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리나케 옷을 입고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아 감격의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저 콧노래라도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강조하며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교육부서는 그저 부속기관으로 취급되기 일쑤다. 어린이



예배실은 대체로 지하 또는 가건물에 위치해 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역자들도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파트타임 교육전도사에게 일임하고 있다.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에 비하면 디즈니랜드나 한국의 온갖 놀이시설을 보라. 어린이 고객을 위한 온갖 다양하고 흥미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갖추고 어린이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작은 식당들마저 비싼 비용을 들여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어린이들의 교회출석과 관련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신앙의 계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아동 발달과 신앙

「영적 이정표」 Spiritual Milestones 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저자들은 아동 발달 과정을 세 단계로 요약한다. 이에 따르면, 태어나서 일곱 살까지의 아이들은 혼적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어른들이 제시하는 모든 것을 흡수한다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어린이들의 신앙은 대개 부모의 믿음을 반영한다.”<sup>3</sup> 일곱 살에서 열다섯 살까지의 아이들은 인상기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가치관과 신앙을 최대한 수용해 자기 신앙에 대한 밑거름으로 삼는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영적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정체성이 엷보일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sup>4</sup> “열다섯 살 이후에 십 대들은 지도기에 들어서는데 이제는 예배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와 믿음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sup>5</sup>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

---

<sup>3</sup> J. Otis and Gail Ledbetter and Jim and Janet Weidmann, *Spiritual Milestones, A Guide to Celebrating Your Child's Spiritual Passages*, (Colorado Springs : Cook, 2001), 12. 베스 에딩턴 휴잇, *빨려드는 어린이 설교*, 이은영 역 (서울: 좋은씨앗, 2008), 16에서 재인용.

<sup>4</sup> Ibid.

<sup>5</sup> Ibid.

검증하고 도전하려 든다. 현실이 이렇다면, 아이들이 어려서 우리의 가치와 신앙을 잘 받아들일 때 성경적 진리와 신앙을 예배하는 동안에 깨닫도록 해주어야 한다.<sup>6</sup> 이를 위해 설교는 대단히 중요하다.

## 재미있는 설교

어린이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설교는 어떤 것인가? 형태와 내용과 전달 방식을 고려해서 대답해야 할 것인데, 많은 경우 설교자 개인의 재능과 결부되어 있어서 그 대답이 쉽지 않아 어린이 설교자들에게 큰 고민거리이다. 어린이 설교에 대한 책만 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린이는 어른들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어린이 설교는 어른 설교보다 더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고, 그 전달 방법에서도 달라야 한다. 어른과 달리 어린이는 주의 집중 시간이 연령과 비례한다. 게다가 어린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어린이의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설교자들은 그 변화에 적합하게 반응할 요량으로 여러 설교 방법들을 사용한다.

박은규는 그의 책 「오래 기억되는 어린이 설교」에서 “어린이 설교를 시행하는 방법에는 대체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이야기식 방법, 실물을 사용하는 방법, 연극적 방법이다”<sup>7</sup> 라고 하면서 ‘오래 기억되는 어린이 설교’를 위해 ‘실물 설교’를 제안한다. 실물을 통해 얻는 이미지를 매개로 유추를 통해 성서의 심오한 진리를 쉽게 이해하여 배우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sup>6</sup> 베스 에딩턴 휴잇, *빨려드는 어린이 설교*, 이은영 역 (서울: 좋은씨앗, 2008), 16.

<sup>7</sup> 박은규, *오래 기억되는 설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7.

예를 들면 야고보서 1:17-22, 26-27 “말할 때 주의하라”는 설교에서 목줄로 사용되는 가죽 끈과 재갈을 비교하며 설교한다. 애완건을 데리고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목줄로 사용되는 가죽 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목줄이 없다면 애완건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이리저리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목줄 없는 애완건처럼 그들의 혀도 마음대로 사용하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애완건에 목줄로 사용되는 가죽 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혀를 잘 다스리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고 그 혀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살자고 하였다.

캐릭터 설교로 “나는 다음 세대 전문 설교자다”<sup>8</sup>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분이 있다. 어느 날 유치원 원장님으로부터 200명의 어린이에게 성경 동화를 들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작한 일이었다. 너무 종교 색깔을 드러내지 말아 달라는 원장의 당부 말을 듣고 난감하고도 어색한 동화 선생님 사역을 시작했는데 2~3개월이 지나자 교회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뜨거운 반응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가 유치원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모두 미소를 지으며 소리를 질렀다. “와 동화 선생님이다.”<sup>9</sup> 그는 생각했다. “아니 왜 나는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환대와 인기를 누리는데 교회만 오면 아이들의 냉대 속에서 설교하게 되는 걸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sup>10</sup> 그리고 그 까닭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설교자로서 잘못된 자세와 마음가짐, 설교법에 문제가 있음을 말이다. 이후 그는 유치원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던 효과적인 방법들을 역으로 추적해서 하나하나 그 노하우를 찾아냈고 그것이 캐릭터 설교법의 원리가 되었다고

---

<sup>8</sup> 강창식, *캐릭터 설교* (서울: ㈜넥서스, 2012)

<sup>9</sup> Ibid., 10.

<sup>10</sup> Ibid.

한다.<sup>11</sup>

그는 “TV보다 더 재미있는 설교를 꿈꾸라” 고 말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TV와 게임, 영화, 스마트폰이 몽땅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회를 떠난 이유’ 를 물었을 때, 아이들의 90%가 ‘재미없어서’ 항목에 체크했다고 한다. 또한 ‘교회 선생님이 가장 싫을 때가 언제인가?’ 라는 물음에 초등학교 2학년 2위가 ‘공과 공부를 지루하게 하실 때’ 였다고 한다.<sup>12</sup> 그러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설교자와 교사들이다. 재미있게 설교하고 또 재미있는 성경 공부가 되면 아이들의 태도는 달라진다. 설교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이야기하기’ 라는 뜻이다. 원래 이 단어는 문학에서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그 사용범위가 마케팅, 광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세상사 모든 것을 이야기를 통해 이해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스토리텔링을 강조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더욱더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어린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필자의 자녀는 어린 시절 잠자리에서 읽어주었던 「미덕의 책」 속 ‘치킨 리틀’ 을 성인이 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동화구연처럼 과장하며 동물들 소리와 파닥임을 그대로 흉내 내어 들려주었다. 당시 이불을 차며 웃던 두 꼬마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 성경은

---

<sup>11</sup> Ibid., 22

<sup>12</sup> Ibid.

이야기로 가득하다. 환상적인 모험과 판타지로 치자면 요즘 인기 있는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 보다 흥미롭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성경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듣는 것을 최고의 고역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 설교의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야기 자체만큼 매력적인 설교는 불가능할까? 길고 장황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어린이들은 금방 싫증 날 것이다. 성경 내용을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최고의 방법은 스토리텔링이다. 어린이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혹은 재미있는 소품, 효과음, 의상 등을 이용하거나 어린이들을 이야기 속에 참여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이야기에서 관건은 오늘의 이야기가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환기해주는 일이다.

김영래는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이라는 글에서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청취하는 청자(listener)는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고 말하면서 “행위의 연속이 담보된 청자의 스토리텔링이 이야기를 살게 하는(living the story) 모형이 되고 이것이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 교육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sup>13</sup>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주변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야기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육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다.

스토리텔러(Storyteller)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즉 ‘이야기꾼’이라는 뜻이다. 유럽 중세 시대에 성을 돌아다니며 시나 이야기를 들려주던 음유시인들도 스토리텔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쟈슨 교수가 밝힌 대로 놀랍게도 초기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스토리텔러였다고 한다. 그 당시 성경

<sup>13</sup>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제91호(2017), 168.

해석학이란 “스토리로 사고” 하는 해석이었다고 한다.<sup>14</sup> 어린이 설교자는 누구보다도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을 고려한다면 더욱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식도 매력적이어야 한다. 길고 복잡한 이야기는 금방 싫증이 난다.

### 뇌과학과 설교

특별히 리차드 H. 콕스는 「뇌는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서 “오늘날 설교자들은 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sup>15</sup>고 말한다. “설교자의 설교는 감각기관들로 모아지고 그 말들을 걸러서 뇌의 더 높은 단계들로 전달하는데 뇌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뇌는 또한 매우 복잡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의 집중력은 짧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15초짜리 짧고 강렬한 광고 문구들에 길들여 있고, 온갖 게임과 유튜브가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교자들은 어린이들의 짧아진 집중력의 시간과 싸워야 하고,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 거대한 모니터와 극적으로 짧아진 삶의 속도와 싸워야 한다”<sup>16</sup>고 강조한다.

그러나 “어떻게 뇌가 작용하는지에 대해 점점 넓혀져 가는 지식이 설교자들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

<sup>14</sup> 이연길, *이야기설교학* (서울: 쿤란, 2003).

<sup>15</sup> 리차드 H. 콕스, *뇌는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김창훈 역 (서울: Korean Edition, 2014), 9.

<sup>16</sup> Ibid.

설교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sup>17</sup>는 것이다. 설교는 분명 뇌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설교의 목적은 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뇌는 인간성의 형성과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sup>18</sup>는 것이다.

계획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설교는 뇌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창출할 수 있다.<sup>19</sup> 인간의 뇌는 통합하고, 합성하고, 즐거워하고, 희망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는다. 설교만큼 이러한 뇌의 요구를 조건 없이 만족시켜주는 것은 없다. 정서적 고통과 절망이 희망과 평안으로 변화하는 동안 정신이 치유되고 관계들이 회복된다.<sup>20</sup> 설교는 뇌로 하여금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과정의 새로운 신경 경로를 통하여 다시 생각하고 다시 조직하고, 다시 연결하고, 다시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신경과학은, 뇌가 사고의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재교육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과정을 ‘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 뇌가 마치 플라스틱처럼 환경과 경험에 의해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역자주)이라고 한다. 설교는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해부학적으로도 뇌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1

개혁교회 전통의 예배에서 설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설교를 통해서

---

<sup>17</sup> Ibid., 10.

<sup>18</sup> Ibid., 10.

<sup>19</sup> Ibid., 15.

<sup>20</sup> Ibid., 28.

<sup>21</sup> Ibid., 29.

교회가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지며, 설교는 성도의 삶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 사람의 위대한 설교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꿨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설교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과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많이 다르다. 설교하는 것과 목회하는 것은 각각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교 사역과 목회 사역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효과적인 설교는 성공적인 목회를 위한 기초이며, 효과적인 목회는 청중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sup>22</sup>

설교의 신비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에 있다.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인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다. 설교는 성령의 역사로 뇌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 뇌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콕스(Cox)는 전문적이고 열정적으로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전하기 위해 뇌과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를 권면한다.<sup>23</sup>

### 어린 시절의 설교의 중요성

성경은 언제부터 가르쳐야 하는가? 이에 대해 조병호는 “5세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한다. 또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역사 순으로 배열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성경 전체를 이야기로 들려주라” 고 말한다.

---

<sup>22</sup> Ibid., 30.

<sup>23</sup> Ibid., 10.



유대인은 성경 교육을 어떻게 할까? “유대의 남자 어린이들은 5세에서 6세 사이 Beit Sefer (House of Book)라 불리는 학교에서 토라 공부를 시작” 하며,<sup>24</sup> 교육방법은 기록된 토라(Mikra, Written Torah)를 암기하는 것으로 10세까지 모세 오경인 토라 전체를 암송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야기가 바탕이 된 토라의 암송은 자연스럽게 토라의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되었다.<sup>25</sup>

10세가 되면 구전 토라(Mishnah, Oral Torah)를 Beit Talmud(House of Learning)에서 배운다. 여기에서는 모세오경 이외의 구약 성경(히브리 성경) 전체를 역시 암기의 방법으로 공부한다. 14세까지 이 학교에서는 질문과 대답 형식의 유대적 학습 방법인 하브루타(havruta)를 통해 탈무드(Talmud, 구전과 기록된 토라, 후대 집성된 탈무드와 다른 의미)를 공부한다. 그리고 랍비가 성경의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그 문장의 앞과 뒤의 문장을 말하는 remez(히브리어의 힌트)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한다.<sup>26</sup>

어린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중요하다. 모든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회학교 아동부 어린이가 청소년부와 청년부 과정을 지나면서 상당수가 교회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1차 이탈현상은 비신앙인 부모를 둔 어린이가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로 진급한 후 볼 수 있다. 부모의 신앙지도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의 반대

---

<sup>24</sup> Lois Tverberg, *Reading the Bible with Rabbi Jesus: How a Jewish Perspective Can Transform Your Understanding* (Grand Rapids, MI: Baker Publishing Group, 2018), Kindle Edition, Location 2203.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제94호 (2018), 457에서 재인용.

<sup>25</sup>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제94호 (2018), 457.

<sup>26</sup> Ann Spangler and Lois Tverberg, *Sitting at the feet of Rabbi Jesus: How the Jewishness of Jesus Can Transform Your Faith*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8), 28-9.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제94호 (2018), 458에서 재인용.

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2차 이탈 현상은 청소년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학진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문화가 학업과 신앙 사이에서 학업에 더 진념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탈율은 더 높아진다. 직장이나 학교를 따라 부모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스스로 신앙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아이때부터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성경을 기반으로 믿음을 훈련한다면, 청소년의 교회 이탈율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본 논문은 이런 생각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아이들에게 신학적 개념들을 가르치는 것을 제한하는 대부분의 견해와 커리큘럼은 피아제 이전의 잘못된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피아제는 아이들의 뇌는 유연성이 있고 쉽게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피아제의 견해에 동의한다. 뇌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능력, 즉 ‘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이라고 알려진 이 능력은 피아제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어린이에게도 그 능력이 작동한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과도기에 있는 어린이들도 외부의 자극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들을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삶 전체에서 이 시기의 감수성과 학습 능력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의 풍성한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목회자는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것이다.<sup>28</sup>

---

<sup>27</sup> 리차드 H. 콕스, *뇌는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김창훈 역 (서울: Korean Edition, 2014), 82.

<sup>28</sup> Ibid., 82.

## 제 IV 장

### 군인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통설교

#### 통성경의 정의

‘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여러 가지다. 사물의 굽기나 둘레, 사람의 도량이나 씹씹이를 가리켜 통이 큰 사람이라고 쓰기도 한다. 배추나 편지를 세는 단위, 여럿이 뜻이 맞아 하나로 묶인 무리를 가리켜 한통속, 물건을 담은 그릇, 속이 빈 둥근 나무, 어떤 일이 벌어진 환경이나 관국, 즉 난리통, 장마통 등에 쓰이기도 하고 ‘통째’를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인다. 조병호는 ‘통(通)’의 문자적 의미에 대해서 『통이다 렛츠 통』에서 이렇게 정리하였다.

통(通): 통하다, 꿰뚫다, 두루 미치다, 탈없이 통하다, 두루 알다, 환히 비치다, 통하다, 건다, 보급되다, 오가다, 왕래하다, 알리다 전하다, 통보하다 정을 나누가, 통(편지나 서류나 악기를 세는 말)<sup>29</sup>

이 가운데 통(通)의 의미를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풀이는 ‘통하다’라는 말인데 ‘通’을 ‘通하다’로 풀이해놓은 것에 불과하니, 뜻을 되짚어볼 수 있는 풀이로는 ‘꿰뚫어 두루 미치다’ 정도가 되겠다.<sup>30</sup> ‘통’이라는 말의 용례를 통해서

---

<sup>29</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52.

<sup>30</sup> Ibid.

알 수 있듯 ‘통’은 조각이나 단편과 반대되는 것을 가리킨다.

‘통성경’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순으로 읽는 것에서 출발한다.

‘통성경’에 대해 조병호는 그의 책 『통성경 길라잡이』에서 “통성경이란 성경 66권 전체를 파편화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소리 내서 읽는 것이다.”<sup>31</sup> 라고 하였다. 이렇게 통으로 읽게 되면 독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면서,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를 통으로 보게 된다. 성경에는 대략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이 들어 있다. 또한 성경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이야기를 통으로 보여준다. 개인의 일과 가정의 일이 그들이 몸담고 있는 나라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나라의 이야기로 통으로 보아야 함을 보여준다. 성경에는 또한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여준다. 제사장 나라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나라이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하나님은 5대 제국을 하나님의 경영에 사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계시한 뜻을 완성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셨다.<sup>32</sup>

통성경을 매개로 우리는 역사의 시간과 공간에서 그리고 사람과 민족과 제국에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굳이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성경을 통으로 읽을 때 느낄 수 있다.

부목사로 재직했던 낭월교회에서 성경 통독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다. 먼저

---

<sup>31</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11.

<sup>32</sup> Ibid.

간단하게 성경의 맥을 짚어 준 후 처음에는 자기 목소리로 읽는 방식으로, 그 후에는 성경 앱을 통해 읽어주는 내용을 눈으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주일을 꼬박 앉아서 읽었다. 성경 통독에 참여했던 권사님, 집사님들은 통독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힘들었지만 대단히 뿌듯하다고. 그중 한 집사님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성경을 통으로 읽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셨는데, 이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너무나 말을 안 듣는 인간이 자신 같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느껴져서 자꾸만 눈물이 났다.’ 는 말이다. 성경 통독 이후에 이 집사님은 성경 통독에서 받은 은혜를 불우한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표현하였다. 가을이 되면 쌀 10포대를 구제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헌물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응답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장한 것이다.

대전 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였던 고 정기덕 교수는 그의 ‘성경 통독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왕복을 했다고 해서 그 길을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오고 가다 보면 어디에 휴게소가 있고, 어디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어디쯤 위험 구간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 통독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기억하거나 다 알 수 있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몇 번씩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전체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셨다. 통성경은 먼저 큰 그림을 보여주고, 성경을 읽게 되므로 숲을 보여주고

나무를 보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유익한 통성경을 어린아이 때부터 들려주고 또 읽도록 지도한다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그들의 인생에서 필요한 근본적인 자양분을 공급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경은 많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과 신약이 66권이고, 관주 성경으로 1,754페이지이다. 일반적으로 출판되는 책들은 대체로 200~300페이지 길면 400~600페이지인데 반해 성경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손에 잡고 완독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시대적, 문화적, 언어적 거리가 멀어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구절이 산재해 있다. 셋째, 편집상의 문제다. 성경은 연대순으로 편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성경의 연대적 흐름을 파악하여 맥락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연대를 이해하기에 도움을 주는 서적들이 많이 나왔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찾아 공부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책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더불어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의 홍수로 인해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바쁜 일상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성경책을 통으로 읽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성경 지식만으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해 조병호는 성경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성경은 얇은 책이다. 둘째,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다. 셋째, 성경은 1년 10번 들을 책이다. 넷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다섯째,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책이라는 의미의 두께에 비해 무척 얇다는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담아낸 책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소리 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을 많이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많이 들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다. 성경은 시대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 통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 전체를 그 흐름에 따라 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또한 통시적, 공시적 성경 읽기를 통으로 서양의 분석적, 동양의 직관적 해석을 통으로 살펴 성경을 정경적이며 동시에 심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sup>33</sup> 그러므로 조병호는 “성경은 2,000여 년 시간, 1,500여 공간, 5,000여 인간을 통으로 그리고 한 개인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해주신 내용부터 가정, 그리고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 이야기까지 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조병호는 성경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라는 두 개의 주제 아래 20개의 마당으로 정리하였다. 1마당 하나님의 마음, 2마당 열방을 향한 꿈, 3마당 만나 세대, 4마당 신앙 계승, 5마당 천년 모범, 6마당 마음과 지혜,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8마당 절망 앞에 선 희망, 9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10마당 재건 공동체, 11마당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12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 13마당 한 영혼 사랑, 14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15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16마당, 열리는 제자 시대, 17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18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19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20마당 미리 전해 받은 승리의 노래이다.

조병호는 성경 통독의 목적에 대해 “성경을 아는 것 자체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자체에서 끝나면 안 된다. 성경 통독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입구이자, 실천의 땀을 흘리는 장으로 나아가는 출구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받은 직한 섬김을

<sup>33</sup>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7), 23.

이루어 내는 실천, 그 실천의 현장 속에서 성경의 구절구절들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조병호의 ‘성경통독’ 제목의 책 안에 수록된 글에서 “통이란 기도와 묵상의 형태로 말씀을 읽는 신성한 성경 읽기 방식을 지칭하는 한국어 단어이다.” (Tong is a Korean word for a sacred reading of Scripture that is a form of prayer and meditation) 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읽으며 기도와 묵상을 겸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통설교란?

통설교는 통성경에 기반을 둔 설교라 말할 수 있다. 통성경이 성경 전체를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통설교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스토리로 들려주는 것에서 시작하여 설교의 형태로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누구도 독서를 시작하면서 첫 페이지를 건너뛰고 중간 페이지부터 읽거나 혹은 결말 부분부터 읽고 역으로 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곳저곳 마음 가는 대로 펼쳐서 읽거나 하루에 3장씩 일 년 동안 나누어 읽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린 시절 처음 읽었던 ‘잭과 콩나무’ 라는 동화책도 처음부터 읽기 힘들다고 중간부터 읽지 않았다. 아마 그랬더라면 잭이 왜 거인에게 쫓기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누가 연인에게 받은 편지가 길다고 몇 날 동안 나누어서 읽기를 선택하겠는가? 밤을 꼬박 새워서 열심히 읽을 것이다. 성경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을 향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책이다. 그러기에 조병호는 “하나님 사랑을 기록한 책 치고는 짧다.” 고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통설교는 다양한 각도로 성경을 보여준다. 기존의 기독교 교육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선택하여 1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의 어린이 교육 교재를 살펴보면, 1972년 성서와 생활, 교회와 생활, 그리스도와 생활이라는 주제로 각 1년씩 3년 주기의 교재를 출판하여 사용했다. 그러다가 1977년 80년대 교회 상황에 맞는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말씀과 삶"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계단 공과가 교재로 출간되었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육부 실무자들에 의해 준 학년 별로 된 것을 학년별 교재로 개편하여 사용하였다. 이 교재를 2000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20년간 사용하였다. 이후 3차 교육 개정은 “부르심과 응답” 4차 교육 개정을 통해 [GPL] 교육과정이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적 주제에 맞추어서 성경의 말씀을 쫓아가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제와 말씀의 연관성에 맞추어 어린이들에게 그 말씀의 교훈을 주기에 효율적이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조망하여 시대마다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응답의 역사를 통으로 이해하기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통설교는 공시적 각도와 통시적 각도 모두를 고려하여 역사의 흐름을 따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된 점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 줄 땅으로 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도착하였으나 그가 그 땅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것은 복이 아니라 기근이었다. 공시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장애물을 만난 것처럼 보인다. 기근을 피해 보고자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위기를 만나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 견지시고 아브람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는 긴 시간과 환난, 그리고 100세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했다. 공시적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언약은 요원하게 보이지만 통시적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 이어지고, 애굽 생활 400년, 그리고 출애굽 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후손들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5대 제국-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이 이스라엘 역사와 어떻게 관계되고 그들의 역할과 제국의 흥망성쇠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통설교는 성경 전체를 52개의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역사 순으로 들려준다. 어린이들에게 있어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미있는 이야기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와 예언서의 이야기들은 자칫 어린이들의 흥미를 잃게 만드는 어렵고 힘든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어린이들은 설교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순수한 영혼의 소지자들이다. 2,000년의 역사를 풀어, 사회와 역사를 아우른 성경 이야기들은 어린이들이 함께 배우고 익힐 수 있기에 충분하다.<sup>34</sup> 통설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왕들과 각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냈으며,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의 큰 줄거리 안에서 서신서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sup>35</sup> 통성경 설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들려주기에 성경 66권을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다.

어린이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유대 민족은 높은 추상력과 사고력이 있어야 하는 학문이나 비즈니스에 수많은 인물을 길러내고 있는데 유대인의 추상 능력이 우수한 것은 어릴 때부터 「추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습관이 길들여 있기 때문”<sup>36</sup>이라고 한다. 기독교는 우상숭배를 배격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화나 기타의 십자가를 뺀 상징물을 걸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형상화될 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과 훈련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큰 지적 자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sup>37</sup> 유대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최초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터득한다고 한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보며 자라났다. 어린

---

<sup>34</sup> 조병호, *어린이 성경 통독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09), 10.

<sup>35</sup> Ibid., 9.

<sup>36</sup> 루스 살로, *유대인의 유아교육*, 차경미 역 (서울: 예지원, 1983), 48.

<sup>37</sup> Ibid., 48.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가 공장에서 만드는 각종 형상을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이상한 일로 여겨졌다. 이 일은 어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아버지의 손으로 만든 형상은 우상일 뿐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태양일까? 달일까? 여러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그러나 태양은 해가 지면 함께 없어지고, 달은 날이 샘과 동시에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달이나 태양이 아닌 더욱 훌륭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하나님이란 물질이 아닌 정신이란 점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모두 파괴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우상은, 말은 고사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며, 걸어 다닐 수도 없는데 어째서 하나님입니까? 아버지는 왜 우상에게 절을 합니까? 우상에게 예배를 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선언한다.<sup>38</sup>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은 중요하다. 특히나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추상적 사고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지만, 사실 추상적인 사물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은 추상에서의 시작이며,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 활력소도 된다는 것<sup>39</sup>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통설교는 크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다. 통설교는 성경의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면서,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를 통으로 보게 된다. 성경에는 원 역사 시대 이후 대략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

<sup>38</sup> Ibid., 50.

<sup>39</sup> Ibid., 51.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이 들어 있다.<sup>40</sup> 또한 성경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이야기를 통”으로 보여준다. 개인의 일과 가정의 일이 그들이 몸담고 있는 나라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의 이야기로 통으로 보아야 함”을 보여준다. 성경에는 또한 “제사장 나라와 오대 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를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제사장 나라였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5대 제국을 하나님의 경영에 사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것이다.”<sup>41</sup>

### 통설교의 필요성

‘아는 만큼 보인다’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그림에 대해 아는 만큼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전체 성경의 맥을 모르고 보는 성경과 알고 보는 성경이 다르고, 성경의 전체를 통해 부분을 듣는 것과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부분을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필자의 주일학교, 중학교, 고교시절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무엇일까?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나신 예수님, 사자 굴 속의 다니엘, 욥기 이야기, 그리고 무서운 계시록 이야기가 다였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그 어느 시절에도 성경읽기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거나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설교하는 교역자를 보지 못했다. 물론 단편적인 개인의 경험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sup>40</sup> 조병호, *성경 통독과 통(通) 신학* (서울: 통독원, 2008), 18.

<sup>41</sup> Ibid., 23.

성경교육은 필자로 하여금 믿음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을 유발하지 못했다. 이러한 신앙교육의 결과는 이단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속수무책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다.

고교를 졸업하고 친구를 따라 갔던 교회가 가나안 교회라는 이단 교회였다. 이곳에서 처음 엘리야를 먹인 까마귀 이야기를 들었다. 엘리야를 먹인 까마귀는 까마귀가 아니라 당시 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을 까마귀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우상숭배에 사용했던 제물을 엘리야가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이제야 비로소 성경의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은 우쭐함이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고교 시절 교회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가 그곳이 이단이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나가지 않았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어야 한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전체의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 비록 한번에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 년, 혹은 이 년의 시간 동안 계획을 잡아서 차근차근 성경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평생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삶의 환경은 다양한 종교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대문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온통 세상의 문화가 어린이들의 눈과 마음을 현혹하고, 그들의 마음과 가치관을 붙잡고 혼돈다. 어린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성경의 지식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역사하심에 대한 질문은 성경을 배우고 읽을 때 생긴다. 어린이들의 입에서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어요? 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했나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이 터져 나와야 한다. 다소 잔혹하고 잔인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애써 함께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난 후에 마음은 아주 많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부강했던 고대 근동의 국가들의 몰락을 보면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느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 통설교 진행

<표1> 통설교 진행과정

역사순 <sup>42</sup>	스토리	주	주제
죽장시대	1.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1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2	노아 이야기
	2. 엄마아빠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 주세요	3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4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
	3. 믿음	5	요셉 이야기

<sup>42</sup> 조병호, *어린이 성경통독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14), 14.

모세와 출애굽 시대	4. 신문에 나온 모세 이야기	6	신문에 나온 모세 이야기
	5. 하늘 보석	7	기적 같은 이야기
		8	모세가 가장 행복 했던 시간
	6. ‘거룩’ 공부하기	9	하나님의 러브레터
		10	거룩은 사랑이에요
	7. 모세에게 배우 성경공부	11	민수기 이야기
		12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선택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	8. 여호수아와 갈렙의 노래	14	여호수아와 무너진 여리고성
		15	갈렙의 멋진 선택
	9. 사막의 오아시스	16	부탁을 잊었어요
		17	사막의 오아시스
왕정시대	10. 기도의 어머니 한나	18	기도의 어머니 한나
		19	봄비 같은 사람 사무엘
	11. 처음엔 멋있었는데	20	첫 번째 왕 사울
		21	다윗 예선전
	12. 왜 ‘다윗’ 일까?	22	왕이 된 다윗
		23	다윗 왕의 2가지 프로젝트
	13. 이스라엘 왕 이야기 1	25	솔로몬 왕 이야기
		26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
	14. 이스라엘 왕 이야기 2	28	남왕국 유다 이야기



	15. 이스라엘 왕 이야기 3	29	남왕국의 최후
		30	하박국, 스바냐, 나훔, 요엘 이야기
	16. 아름다운 노래	31	솔로몬의 노래
		32	욥의 노래
바벨론과 포로시대	17. 벌서는 시간	33	예레미야 이야기
		34	에스겔 이야기
	18. 10대에 꼭 읽어야 할 책	35	다니엘 이야기
	19.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	36	에스더 이야기
		37	학개, 스가랴 이야기
		38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
20.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는 시간	39	말라기 이야기	
신구약 중간사	21. 어린이 Let' s Tong!	40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	22. 마태가 쓴 예수님 이야기	41	마태복음 공부
	23. 마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	42	마가복음 공부
	24. 누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	43	누가복음 공부
	25. 요한이 쓴 예수님 이야기	44	요한복음 공부
교회의 시작과 열두사도들의 사역	26.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제자	45	제자가 되었어요.
사도바울의 사역과	27.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기쁨	46	바울의 1,2차 전도여행

바울서신		47	바울의 3차 전도여행
		48	로마서를 쓴 이유
	28.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요	49	바울의 로마 여행
		50	바울의 편지들
공동서신 과 요한계시 록	29. 위로와 격려의 편지	51	위로와 격려의 편지
	30. 하나님 사랑해요	52	나의 친구 사도 요한

교재 선정은 “어린이 성경 통독”<sup>43</sup> 으로 하였다. 통설교는 30개의 주제를 52주로 나누어 진행하되 모든 성경은 역사 순으로 진행한다. 단 52주 중 여름성경학교와 겨울성경학교 각 1주씩 두 주가 소요되어 전체 일정상 빠지기 때문에 두 주 동안 2개의 주제를 묶어서 진행해도 무리는 없다. 설교는 총 10분에서 15분 동안 진행한다.

### 하나님의 마음

통설교의 첫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좋았더라” 이다.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하나하나 완성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어린이들도 자신이 만든 것은 소중하기 마련이다. 자기가 만든 것을 보며 좋아하는 마음이 있듯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창조물을 보시며 “좋았더라” 라고 하신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있는지를 이야기한다.

<sup>43</sup> 조병호, *어린이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7).

두 번째 주 통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도 마음에 흡족하셨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달되었고,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였고, 방주 안에 구별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구별한 동물들 이외의 모든 생명을 몰로 심판하셨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자식일지라도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프다. 노아의 방주 사건과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는 사건이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제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을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의 성취를 또한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 아들에게 12 아들은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후손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요셉의 더 높아진 수준의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셨고, 이 그림이 성취되기까지 맨 앞에 요셉이 서 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요셉에게 전해졌고, 요셉은 그 믿음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집트 땅, 혈육 하나 없는 모진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그려진 그림을 완성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바치는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던 요셉이지만 이집트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더 크게 키워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어린이들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52주 동안 PPT에 담아서 전한다. 한 주 설교에 평균 슬라이드 10개 내지 15개 정도 사용하였다. 그림을 지원하는 곳은 많지만 스토리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 사이트<sup>44</sup>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많은 그림은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고,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만들어 준다. 그림에 텍스트를 첨가하면 굳이 원고 없이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 통설교의 내용

### 제사장 나라에 대하여

통성경 설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어렵지 않게 알게 한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만든 나라이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우리가 배운 것과는 좀 다른 나라이다. 학교에서 배운 국가의 삼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이다. 하나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도 빠져서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장 나라는 주권도 영토도 국민도 없었던 나라였다. 그런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그림을 그리시고 완성하셨다.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되며 어디에 서 있는가?

조병호는 “제사장 나라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서 형성되었다” 고 말한다<sup>45</sup>.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언약과 함께 그를

<sup>44</sup> <https://www.freebibleimages.org/stories/?contributor=sweet> 무료로 그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sup>45</sup> 조병호, *성경 통독과 통(通) 신학* (서울: 통독원, 2008), 24.

복이 될 것이라 선언하셨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1-2).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시작점인 것이다. 조병호는 이에 대해 그의 책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의 복의 통로인 ‘제사장 나라’ (A Kingdom of Priests)를 그때부터 이미 꿈꾸셨고,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이에서 제사장 지파로서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나라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세우고자 하신 제사장 나라는 온 세상 사람들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 프로젝트였다.”<sup>46</sup> 즉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을 사랑할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의 통로로 세우신 독특한 나라라는 것이다.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 나라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수렴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이다.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고 유지되는가? 그 비밀은 바로 “성전과 장자”<sup>47</sup>이다. 출애굽 한 후 2년과 40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명하셨다. 그런데 인구조사의 방식이 좀 남다르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민1:2-3) 둘째,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민3:15) 셋째, “이스라엘

<sup>46</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34.

<sup>47</sup> Ibid., 83.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일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민3:40)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했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2> 인구조사결과

인구조사 목록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인구조사 시기	출애굽 후 2년	출애굽 후 40년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	603,550	(20세 이상) 601,730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들의 숫자	22,000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의 숫자	22,273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구조사 방식 중 12지파 장자들의 숫자를 조사한 것이 다른 나라의 인구조사 방식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장자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들의 숫자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의 숫자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13:1-2)

즉 인구조사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신 레위인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또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되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복무하고 봉사하게 하셨다.

레위 지파 가운데 3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회막 봉사와 메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사람(민4:48) - 총 8,580명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고탓 자손 - 2,750명.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게르손 자손 - 2,630명.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므라리 자손 - 3,200명.

제사장은 제사장 나라의 법에 따라 제사를 집행하고, 공동체의 모든 질병을 관리, 감별, 격리하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율법을 따라 살도록 이끌었다.

조병호는 제사장나라를 이렇게 정리한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잘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제사장 나라를 성경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 장자들의 생명을 지켜 주어서 그 기반 위에 제사장 개념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둘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이다. 5가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이다. 추수 때에 밭모퉁이 일부를 남겨둠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제사장 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이다. 율법을 지키면 5명이 100명과 맞서 싸워 이기고, 100명이 1만 명과 맞서 싸워도 이기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이다. 제사장은 법궤(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다. 그 때문에 법궤를 모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제사장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에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은 유월절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의 장자에서 그 개념이 나왔다는 사실을 언제나

주목해야 한다.<sup>48</sup>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왕이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웅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여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같이 되었지만, 결코 왕이 되려 한 적이 없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이후 많은 이스라엘의 영웅적 인물들 기드온과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도 왕이 되려 한 사람은 없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끝내 하나님께 왕정을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왕정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셨다. 그러나 왕정은 더 큰 문제를 생산하였다.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했을 때 백성은 그 왕을 따라 함께 범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징검다리”<sup>49</sup>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진 때부터 이스라엘 사회에 등장하여 각각이 속했던 나라, 혹은 그 반대편의 나라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그들의 사명을 망각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sup>50</sup>고 주장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끝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우치지 않았고, 결국 각각 앗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흩어지게 되었다.

---

<sup>48</sup> Ibid., 47-48.

<sup>49</sup> Ibid., 168.

<sup>50</sup> Ibid., 171.



## 성경과 제국

이집트: 성경에는 이집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6개의 제국이 등장한다. 이 제국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형성과 소멸에 관계되었다.

이집트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나라이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던 것부터,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미디안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 간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7년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모두 가나안으로부터 이집트로 이주시켜 보호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 강성했던 이집트는 이후 더이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차례로 나라를 빼앗기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애굽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자연’ 이었다. 일찍이 애굽은 자연조건을 잘 활용하여 농업을 일으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선도했다.<sup>51</sup> 바로 왕의 꿈을 통해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닥칠 것이 예고되자, 지혜로운 이방 사람 요셉을 총리로 삼고 예고된 자연 재난을 잘 대처함으로 성공적인 나라 경영을 이루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히브리 남자아이들에 대한 ‘영아 살인 명령’을 내리는 잔인함과 굳은 마음으로 출애굽을 저지하다가 결국 계속된 재앙과 흉해 바다에 군사력을 잃게 되어 이집트의 국력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

<sup>51</sup>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61.

앗수르: 관련 성경 - 요나, 나훔, 이사야, 아모스, 열왕기하, 역대하 등

앗수르는 B.C. 1350-612년, 약 520년 동안 상 아시아의 주인으로 군림했던 나라이다. 땅의 크기만 해도 너비 160Km, 길이 640Km로 출발하여 동서남북 3,200Km에 걸친 소아시아와 초원 그리고 사막을 장악하고 다스렸다. 앗수르는 성경과 관련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나라로 요나, 나훔, 이사야, 아모스, 열왕기하, 역대하 등이 있다. 수도 니느웨는 성벽 길이 13Km, 높이 60m로 마차 3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넓이었다고 하니 제국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앗수르의 문화는 대영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제국의 모습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그 존재를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가 2000년도 더 지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거대 제국의 흥망성쇠 그 뒤에 하나님의 세계경영이라는 큰 그림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다.

조병호는 그의 책 「성경과 5대 제국」에서 “앗수르의 경영 키워드는 ‘경제’였다”라고 말한다. “앗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민족 경계를 무너뜨려 혼혈족들을 만들어 각 민족의 독특성을 소멸시킴으로 반란의 근원을 도려내, 그들의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앗수르 살만에셀에게 3년 동안 에워쌌을 당하다가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 성이 점령당하고 백성이 사로잡혀 앗수르로 끌려간 것을 기록하고 있다. 앗수르로 끌려간 사마리아 주민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 하불, 메대 사람이 사는 여러 고을로 흩어졌고 사마리아인 대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불,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살던 주민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다. 그들은 여호와를 몰라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그들 중에 보내어 몇 사람을 죽게 했다. 그러자 이러한 사정을

앗수르 왕에게 고했고, 앗수르 왕은 앗수르에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 (열왕17:33)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혼합종교의 후유증은 포로 귀환 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정체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남아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심각한 민족분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앗수르의 멸망을 말한다. 그렇게 위대한 문화와 국방을 자랑하던 앗수르의 멸망은 요나와 나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다. 앗수르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와 교만이라고 할 수 있다.

바벨론: 관련 성경 -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다니엘,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열왕기하, 역대하 등.<sup>52</sup>

바벨론은 B.C. 626년 나보 폴리살이 독립을 선언하고 앗수르에 도전하였다. 앗수르 군대를 패배시킨 나보 폴라살은 그의 제국을 견고하게 했으며, B.C. 614년- B.C.612년 바벨론과 메데 연합군은 앗수르 니느웨성을 함락시키고 B.C. 609년 퇴각하는 앗수르 군대를 하란에서 대패시키고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동의 패권 변화 속에서 남유다는 친애굽 정책과 친 바벨론 정책 사이에서 정치적 중심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류 속에 바벨론은 애굽을 쳐서 점령하였고,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에서 인질을 잡아 포로로 끌어갔다. 이것이 1차 포로이며 B.C. 605년의 일이다. 그 후 B.C. 598년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월에 2차 포로로 에스겔을

---

<sup>52</sup> Ibid.

포함한 귀족들을 끌어갔다. 그리고 “시드시아 제 십일 년 넷째 달” (렘39:2)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성을 포위한지 18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고” (열하25:12)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것이 3차 포로이다.

조병호는 「성경과 5대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 경영 키워드는 ‘교육’ 이었다”<sup>53</sup>라고 말한다. 바벨론 왕은 점령한 유다의 젊은 인재 중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으며,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도록” 하였다(단1:3-5). 점령국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인재를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도록 잘 교육하여 바벨론의 충성스런 식민 신하로 만들어 제국을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은 그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잘 교육되어 있었고 바벨론 포로가 유다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 징계가 아닌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sup>54</sup> “다니엘은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고” (단 9:2)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앗수르 제국과 바벨론, 그리고 이어질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시작과 끝을 미리 다

<sup>53</sup>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178.

<sup>54</sup> Ibid., 168.

보게 되었기에 그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벨론의 멸망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그보다 빨리 이루어졌다.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을 만큼 빨리 강대한 힘을 얻었고, 고대 근동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은 화려한 건축물을 자랑했던 바벨론은 왜 그렇게 빨리 내리막길로 향했을까? 그들의 교만과 악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를 벗어나 유다를 괴롭혔고, 탈취한 성전 기물을 향락의 도구로 사용했으며, 우상을 찬양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니엘 5장은 기록하고 있다. 결국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준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단 5:25~28)

제야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나가 무리한 경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심판을 자처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페르시아: 관련 성경 -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역대하 등

바벨론의 종말이 예레이야, 다니엘,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등의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었으나 실제 바벨론의 종말은 빨리 다가왔다. “B.C. 550년 안산(Anshan)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메대의 수도인 악메다를 정복하고 바벨론의

적국이었던 메대를 장악했다. 그는 곧바로 4년 후인 B.C. 546년 루디아(Ludia) 왕국의 크레오수스(Creosus)를 무너트리고 수도 사르디스(Sardis: 사테)를 점령하였다.”<sup>55</sup> 이후 B.C. 539년 고레스왕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했다.

페르시아의 영토는 고레스 2세(B.C. 550-530 재위)왕 때부터 진정한 제국이 시작되었다.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B.C. 529-523년 재위)는 이집트를 정복하였으며, 그의 후계자 다리오 1세(B.C. 522-485년 재위)와 아하수에로 1세(크세르크세스 1세)때가 되어서 127도를 다스리며, 페르시아는 최대의 영토를 가지게 된다(에1:1).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북부 아프리카에서부터 현재의 아프카니스탄과 서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는데, 이 가운데 북쪽으로는 카즈카즈 산맥(Caucasus Mountains)에서 중앙아시아와 남쪽으로는 이란에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지역이 페르시아인(Aryan)이 살았던 지역이다.<sup>56</sup> 성경에는 그 지명이 ‘메디아(메테)’ ‘바사’ 등이 나온다. 이는 페르시아가 많은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중 메대와 바사가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이다.

인더스강에서 유럽까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이 문명 세계를 통일하며 진정한 제국의 모습을 갖추었던 페르시아의 멸망은 정복 전쟁으로 거대 제국을 이루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B.C. 331년 가을에 일어났다. 200여 년의 치세 기간 동안 페르시아는 이집트를 병합하고, 리비아를 정복했으며, 3차에 걸쳐 그리스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원정과 자연재해로 인한 몰살 등 오랜 전쟁과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국의 격렬한 저항, 그리고 환관 바고아스의 배신으로 위기를 맞다가 결국 알렉산더의 침략에 의해 패배하게 되었다.

<sup>55</sup> 이영제, *바이블웨이* (경기: 컴퓨터선교회, 2013), 332.

<sup>56</sup> *Ibid.*, 342.

페르시아의 정책은 여타의 제국들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 “앗수르는 제국의 혼혈주의나 바벨론 제국의 인질 교육 정책과는 다른 관용의 정책”을<sup>57</sup> 폈다. 이것은 1879년 발견된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성경에도 언급된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에1:1) “여기에 보면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노예제를 금지하며 궁궐을 짓는 모든 일꾼은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sup>58</sup> 이에 따라 바벨론에 의해 세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은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 ((B.C. 538~444년, 약94년)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 재건을 위한 지원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헬라 : 관련성경 -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신구약 중간사 400년 등.

B.C. 336년 마케도니아에서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B.C. 331년 다리오의 마지막 남은 군사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수도 바벨론과 수산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하고 계속 동부로 진격하여, 페르시아의 모든 영토를 정복하였다. 인더스강 북부에서 이집트까지 광대한 지역을 점령한 그는 B.C. 323년 귀환 길에 얻은 열병으로 바벨론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나이 32세 였다.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헬라 제국은 다섯 명의 부하들에 의해 다섯 개의 나라로 나뉘었고, 이후 다시 네 개의 나라로 재편성되었다.

<sup>57</sup>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198.

<sup>58</sup> 이영제, *바이블웨이* (경기: 컴퓨터선교회, 2013), 337.

대표적인 다섯 명의 인물은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안티고누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미이다. 이 중 안티고누스는 B.C. 301년에 일수스 전투에서 패하여 셀레우코스 왕조와 리시마코스에 분할되어 네 나라가 되었다.<sup>59</sup> 4명의 장수 가운데 세 명은 꽤 큰 규모의 나라(안티고누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를 세워 왕조를 이루고, 1명의 장수는 소아시아 북쪽에 작은 왕국인 페르가몬을 세워 이후 예술과 문학의 중심지로 헬레니즘의 수호자가 된다.<sup>60</sup> 이러한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예언되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낮은 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단 8:21-22).

“그러나 그는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단 11:4)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사업으로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시대는 이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큰 세계의 한 구성원이 되는 세계주의가 강조되었다. 코이네 헬레니케(Κοινή Ἑλληνική)는 이 새로운 세계를 하나로 묶는 통일 언어로 새로운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되었다.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제우스, 마르дук, 바알은 이름이 다를 뿐 하나의 신으로 여기게 되었다. 알렉산더 자신은 이집트의 태양신의

<sup>59</sup> Ibid., 382.

<sup>60</sup> 프라츠 하이켈하인, *로마사*, 김덕수 역 (서울: 현대지성사, 1999), 224.



아몬(Aμμων:Amon)의 아들을 자칭하여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며 살아있는 신임을 주장했다. 유대인 공동체에 혼합주의는 큰 도전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생겨나는 영지주의 뿌리가 되었다. 알렉산더 제국 이후 유대인들에게는 헬라 세계의 일원이 될 것인지, 유대인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남기게 되었다.<sup>61</sup>

프톨레미 1세에 의해 이집트에 합병된 유대는 비교적 평안한 세월을 살 수 있었다. 프톨레미 왕조는 통치보다는 오히려 유대의 종교적 전통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sup>62</sup> 프톨레미 2세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위해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놀라운 작업이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속국민의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통치의 한 단면을 보게 한다. 이 번역본이 최초의 구약성경 번역본 칠십인 역(Septuagint, LXX)이다.

그러나 프톨레미 왕조가 셀류쿠스 왕조에 통치가 넘어가면서 유대는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된다. 마케도니아의 패권을 놓고 로마와 전쟁에 참여하여 패하게 된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에 지불해야만 했던 전쟁 배상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한 세금을 거두어야 했고, 이 세금은 각국 안에 있는 신전들의 재산 압류로 이어졌다. 특히 유대에 그들 만의 고유한 종교와 문화를 배제한 채 헬라적인 관습과 문화를 강요하였고, 이것은 곧 유대인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저항 세력은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져 마침내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하게 되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다. 유대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서 440년 만에

---

<sup>61</sup> 이영제, *바이블웨이* (경기: 컴퓨터선교회, 2013), 383.

<sup>62</sup> 아놀드 B. 로드스, *통독을 위한 성서해설*, 문희석, 황성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7), 284.

독립을 이룬 것이다.<sup>63</sup> 그러나 요한 마카비, 시몬 마카비, 요한 힐카누스로 이어지던 하스몬 왕조는 살로메 알렉산드라와 두 아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틀루스 2세가 서로 다투면서 권력 싸움을 하다 B.C. 63년 결국 폼페이우스를 통해 로마의 통치로 넘어간다.<sup>64</sup>

조병호는 “헬라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융합’ 이었다.” 라고 말한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철학과 동방의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문화인 헬레니즘을 만들어 널리 퍼뜨려 제국을 영원하게 만들려 했다.<sup>65</sup> 앗수르가 강제 혼혈 방식의 계급을 전제로 민족의 경계를 허물었다면, 헬라는 수평적 세계동포주의적 융합을 이루어 민족의 경계를 해체하려고 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군인들과 페르시아의 여인들의 결혼을 장려하여 민족적 동등을 이루려 했다. 그러나 민족을 섞고 문화를 섞어 융합을 이름으로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sup>66</sup> 각 민족은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적 작품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내용이다.<sup>67</sup>

로마제국: 관련 성경 - 마태복음~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였다. 따라서 신약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로마의 통치력과 로마의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의 행정 명령과 무관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로마 황제의 호적명령으로 요셉과

<sup>63</sup>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267.

<sup>64</sup> Ibid., 268.

<sup>65</sup> Ibid., 273.

<sup>66</sup> Ibid.

<sup>67</sup> Ibid., 274.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였고, 예수님이 걸으시고 사람들과 만나던 곳의 수많은 로마 지명, 로마 총독의 재판과 판결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예수님 사후 제자들의 행적과 그들의 처형, 바울의 전도 여행과 로마 당국에 체포, 황제 상소에 이르기까지 유대와 로마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신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이 쓰인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 밧모섬에 유배되면서 기록하였다.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리스도는 그 약속하심을 따라 반드시 오실 것이며, 악의 세력은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

로마가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독특한 종교와 자치권을 인정하여 산헤드린과 같은 기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A.D. 64년 7월 18일 네로(Nero) 황제 재위 시절 로마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로마시민의 희생은 대단히 컸다. 이에 황제는 슬픔과 분노에 찬 시민들의 마음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화재의 주범으로 기독교도들을 지목하였고, 이때부터 기독교의 박해는 시작되어 A.D. 311년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Diocletian Galeius) 황제 때까지 기독교를 박해하였다.

<표3>기독교 10대 박해<sup>68</sup>

번호	로마황제	재위 (박해 기간)	박해 이유	주요 순교자
1	네로 (Nero) 로마 5대 황제	A.D. 54~68년	로마와 그 변두리에서 발생. 기독교인들이 로마 방화의 희생양이 됨.	베드로 바울

<sup>68</sup> 이영제, *바이블웨이* (경기: 컴퓨터선교회, 2013), 510.

2	도미티아누스 (Domitianus)	A.D. 81-96년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서 발생.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함.	로마의 클레멘트 요한(밧모섬으로 유배)
3	트라이아누스 (Traianus)	A.D. 98~117년	애국심에 대해서 의심받던 다른 단체들과 함께 수난당함. 기독교인들이 발견되기만 하면, 형을 집행함.	이그나티우스 시므온 소지무스 루푸스
4	하드리아누스 (Hadrianus)	A.D. 117~138 년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정책이 고수 됨, 기독교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도 처벌함.	텔레스포루스
5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Marcus Aurelius)	A.D. 161- 180년	황제 자신이 스토아 철학자이므로 기독교를 반대함.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핍박함,	텔레스푸로스 폴리갑 저스틴 포티누스
6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Septimius Severus)	A.D. 193~211 년	기독교로 개종이 금지됨.	레오니다스 이레니우스 페르페투아
7	막시미누스 트락스 (Maximinus Thrax)	A.D. 235- 238년	기독교 성직자를 처형시킴. 기독교인들이 암살당했던 전임 황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박해함!	히플리투스 우르술라
8	데키우스 (Decius)	A.D. 249~251 년	제국 전역으로 박해가 번짐.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 금지	코르넬리우스 알렉산더(예루살렘 감독) 바빌라스 (안디옥 감독)
9	발레리아누스 (Valerianus)	A.D. 253- 260년	기독교인의 자산 압수. 기독교인의 집회를 금지함.	카푸리아누스 투루투어스 오리겐
10	디오클레티아누스 (Valerius Diocletianus)	A.D. 284- 305년	최악의 박해시기로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경이 불태워짐.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가 정지되고 기독교인은 이교신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됨.	마우리티우스 알반

유대교 헬레니즘과 함께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로마의 제국주의이다. 특히 그들의 법률과 모든 제도는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의 건축 양식이나 음악과 예술은 중세기에 그 꽃을 피우기까지 계속 영향을 주었다. 그뿐 아니라 로마의 세계 통일은 세계의 평화와 교통의 편리, 언어의 통일을 통해 복음 전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당시 로마의 길은 눈부신 토목사업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마치 복음을 위해 길을 준비하듯이,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은 세계로 뻗어갔다.<sup>69</sup>

로마 제국은 A.D.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A.D.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기독교는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부와 명예를 소유하며 세속화의 과정을 거쳐 타락의 길로 갔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갈등을 겪으며 동과 서로 나누었고 결국 서로마는 A.D. 476년 제국의 문을 닫았다. 이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A.D. 1454년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로마 제국은 세계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로마 제국의 멸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만족의 침입, 국교화된 기독교, 기후 변화와 농업 피해, 인구 감소, 너무 넓은 영토, 팽창 정책의 한계, 재정 적자의 용병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sup>70</sup>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2,000여 년의 로마 제국도 결국 문을 닫았다. 영원한 제국이란 없다.

로마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관용’ 이었다. 그러나 이 관용은 노예들을

---

<sup>69</sup> Ibid., 393.

<sup>70</sup>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348.

철저히 배제한 귀족 중심의 관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sup>71</sup>

### 신구약 중간기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종이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아주 길고 긴 하나님의 침묵 시기가 있다. 그 시기는 무려 400년 동안 지속하였다. 그 4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대신했던 선지자들이 침묵했음을 의미한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역사적으로 신구약 중간기는 세계의 패권이 페르시아에서 헬라, 그리고 로마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서방의 나라가 동방의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 유다는 B.C. 436년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을 끝으로 예언이 없는 침묵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유다의 정권은 B.C. 319-198년 동안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이후 B.C. 198-165년간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유다에 유한 정책을 펼쳤던 프톨레미 왕조와 다르게 종교적 억압과 강경정책을 펼쳤던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에 제사장 맛다디아를 중심으로 반기를 들면서 유다는 B.C. 166-165년에 독립을 이루어 B.C. 40년 헤롯 가문에 정권이 넘어가기까지 독립의 시대를 열게 된다.

유다에 대한 로마제국의 개입은 B.C. 63년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장악하면서였다. 이 시기 유다는 하스몬 왕가의 후계자 싸움이 치열했던 시기였고, 로마는 헤롯을 분봉 왕으로 세워 “유대 백성의 전통적 신정 정치적 정체(政體)”<sup>72</sup>를 침범하였다. 이두매 족속으로 하스몬 통치 시대 강제로 개종했던 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의 번영에

<sup>71</sup> Ibid.

<sup>72</sup> 윌리스턴 워커, *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29.

기여했으나 그는 이방인이었고, 헬레니즘의 지지자였으므로 거의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그의 과세로 인해 농부들이 궁핍하게 되고 대지주는 땅을 좀 더 많이 소유하였고 많은 일반 민중들이 거지나 도적들이 되었다.<sup>73</sup>

이 시기에 유다는 4개의 종파가 형성되어 있었다. 귀족주의적 제사장 당파인 사두개파, 경건하고 종교적이며 좀 더 배타적인 바리새파, 반 금욕적 공동체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 그리고 무장 투쟁을 지향했던 열심당이다. 사두개파는 율법에는 충실했으나 종교적 확신보다는 정치적 상업적 확장에 더 관심을 보였고, 부활이나 불명의 교리를 부인했으며 선한 영과 악한 영의 개념을 거부했다. 바리새파는 ‘구별된 자들’로서 정치적 행동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율법을 엄밀하게 지킴으로써 거룩한 생활을 하였다. 부활과 메시아 대망, 종말론적 신념을 가르쳤다. 에세네파는 사해 쿰란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통해 알려졌다. 유대인 생활의 본류에서 물러나 성전 예배와 관련된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만 이스라엘의 참된 모임이며 신실한 남은 자라고 믿었으며, 율법을 존경했고, 의로운 스승을 따라 율법의 바른 의미가 당대의 시류에 의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보존할 것을 주장했다.<sup>74</sup>

### 하나님 나라

구약의 키워드가 제사장 나라라면, 신약의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나 두 나라는 서로 상충하는 다른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새롭게 세우신 나라가 제사장

---

<sup>73</sup> Ibid.

<sup>74</sup> Ibid., 31.

나라를 함축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다.<sup>75</sup>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제사장 나라의 삶을 성실히 사셨다.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제사장 나라의 절기와 율법을 지키며 사셨음을 소개하고 있다. 절기의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율법을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성전 세를 내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던 것 등이 이를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sup>76</sup>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였다. 하나는 율법을 잘 알지만 엉뚱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지키는 척 외식하면 살아가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지만 다른 한편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아무 희망도 없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같은 것은 잊어버린 채 억눌리고 찌든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유대민중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과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외식하는 자가 받을 상이 없음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다.

---

<sup>75</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212.

<sup>76</sup> Ibid., 215.



## 제 V 장

### 통성경 읽기

####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먼저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나?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독교인을 통해 현실이 되어야 한다.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맹신일 뿐이다.

이 땅에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독교인이라면 한번쯤 성경을 완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 중에서 성경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았거나, 매일 지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타난 상황이 아니다. 예전부터 한국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독려하면서 했던 말이 있다. ‘일삼주오’, 즉 성경을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일 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육신을 위해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영을 위해서도 하루 석 장씩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영이 건강하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성경 공부나 재미있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 주중이나 주일의 설교 이외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 권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을 알고

또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그나마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김형익은 “하나님은 오해 받고 계신다. 그것도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오해를 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오해도 대단하다” 라고 말한다.<sup>77</sup>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 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2:19)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그 까닭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해된 하나님이다. 오해된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다.<sup>78</sup> 그 하나님은 도널드 맥컬로우가 말한 대로 자기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 자기의 이해에서 비롯된 신, 그리고 자기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이다.<sup>79</sup> 이런 신이 맥컬로우가 말한 ‘하찮아진 하나님’ 이고 데이비드 웰스가 이야기한 ‘가벼워진 하나님’ 이다.<sup>80</sup> 이런 신이 어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오늘날은 큐티 교재도 많고, 프로그램도 넘쳐난다. 그런데 교인들은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세상의 지식에는 그토록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렵다고

---

<sup>77</sup> 김형익,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30.

<sup>78</sup> Ibid., 30.

<sup>79</sup> 도널드 W. 맥컬로우, *하찮아진 하나님*, 박소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24-36.

<sup>80</sup> 데이비드 웰스, *거룩하신 하나님*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135.

피하려 한다. 요즘은 유튜브 검색만 해도 얼마나 많은 수준 높은 성경 강의들이 있는지 모른다. 대표적으로 ‘통성경’ ‘어성경’ ‘바이블 클래스’ 등등의 다양한 관점의 강의들이 있다.

특히 연무대 군인교회는 성경을 사모함이 남달랐다. 물론 여기에는 담임 교역자의 지도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교인이 주일 시간을 이용하여 ‘통성경’ 강의를 들으며 성경을 읽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 즐거움도 컸음을 고백한다. 담임 교역자가 바뀌면서 ‘어 성경이 읽어지네’ (어성경)라는 프로그램을 시도했다. 역시나 많은 교인의 호응으로 성경을 함께 공부하며 읽는 일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는 병사들을 상대로 ‘어성경’을 진행하였다. 시작은 힘들지만, 막상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모두의 얼굴에 힘들지만 신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은을 구하는 것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 2:4-5)라고 했다. 인생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이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최상의 기쁨을 알게 되면 나머지 기쁨들은 아쉽지 않게 되는 이치이다.

## 어린이 성경읽기

어린이들은 어떨까?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성경을 열심히 읽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어린이들의 신앙 모범은 많은 경우 그 부모일 것인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애독하지 않는데 어찌 그 자녀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애독하기를 바랄까? 습관처럼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 여름엔 ‘여름성경학교’ 겨울엔 ‘겨울 성경학교’가 잘 짜인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연중행사로 노회나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성경 암송을 하고 찬양을 부르지만 정작 이 어린이들 스스로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읽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통설교는 통성경 읽기와 불가분의 관계다. 통설교는 통성경을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 성경이 읽어지네’ 프로그램도 사실 성경을 읽기 위한 전초작업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통성경도 성경을 읽기 위해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지 통성경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들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커리큘럼을 따라 한편으로는 성경을 이야기로 듣고, 다른 한편으로 그 이야기를 따라가며 성경을 함께 읽는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성경을 읽게 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성경은 문어체와 고어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읽기가 쉽지 않으니 이해가 쉽지 않고 이해가 쉽지 않으니 흥미가 떨어지게 된다. 어린이들에게 좀 더 쉬운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성경의 전체 분량이다. 조병호는 성경이 아주 얇은 책이라고 강조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에 비해서 얇은 책이라는 의미이지 그 전체 분량은 결코 얇은 책이라고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장르와 문학 형식이 결합된 방대한 책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셋째, 어린이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동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꾸준한 동기부여와 유익을 말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성경을 읽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날마다 꾸준히 읽기에는 한국의 어린이들이 처한 환경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대체로 공교육 외에 받고 있는 사교육이 두세 개 정도 된다. 태권도, 피아노, 발레, 과외, 학원 등등의 스케줄을 다니다 보면 스스로 피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성경 읽기도 또 하나의 과제로 인식하기 쉽다.

다섯째, 성경 읽기가 꾸준히 진행되려면 부모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부모의 신앙의 정도가 차이가 있고,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때로 성경읽기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도 한다. 어린이 성경읽기는 부모의 관심과 격려가 성경 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관리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통설교와 성경 읽기는 함께 가야 할 필요성 있기에 주일 예배시간 통설교를 듣고 분반 공부 시간을 이용하여 함께 성경을 읽게 하였다. 각반 선생님의 지도로 1, 2학년 어린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 성경을 읽게 하였고, 3, 4학년 5, 6학년은 쉬운 성경 또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게 하였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독립된 공간이 부족해서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에 집중할 수 없는 점. 둘째, 어린이들의 읽는 속도가 각기 다른 데서 오는 시간의 공백. 셋째, 집중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다른 행동 등.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는 경험이 되어 이 후에 소리 내서 성경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상반기 구약 통설교를 마치고 여름성경학교 성경 체험학습을 진행한 후 하반기 신약 통설교가 시작되었다. 이때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성경을 소리 내서 읽어보자는 것이었다. 묵독도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에게 음독하자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면서 ‘어린이 성경읽기’를 여러 번 시도하였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첫째,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고, 둘째, 어린이 공동체가 각자의 성경읽기 상황을 공유할 방법이 약하고, 셋째, 참여가 저조하고, 넷째, 부모님의 관리를 필요로 하다 보니 자칫 부모님의 숙제가 되어 버리는 수가 있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준비한 큰 선물도 어린이들에게 계속된 동기가 되지 못했고, 또 점차 읽어야 하는 분량을 놓치면서 읽기를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롭게 ‘소리 내어 읽기’를 제안했다.

###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책이다

조병호는 그의 책 「성경통독」에서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책이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순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부분이 많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이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다. 성경을 소리 내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된다. 문자가 아니라 음성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묵독으로 읽는 것도 좋겠지만 소리 내 읽어야 할 이유이다.

### 성경 소리내서 읽기 경험

‘소리 내 읽기’의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얼마나 더 유익하겠는가? 필자는 공교육 시절,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호명으로 교과서를 소리 내어 읽었던 기억 말고는 스스로 독서를 위해 소리 내어 읽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신학교 1학년 시절 신약성경 전체를 소리 내어 읽는 기회가 있었다. 당시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정기덕 교수는 학생들에게 의외의 과제를 주었다. 신약의 각 책을 소리 내어 읽는 숙제였는데 거기에는 규칙이 있었다. 첫째, 방해물 차단하라. 사람들과 분리된 공간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꺼라. 둘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끊김 없이 소리 내어 읽어라. 만약 방해물 받아서 끊겼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읽어라. 셋째, 책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마라. 기존에 들었던 설교 내용도 다 잊고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라. 넷째, 시간을 재서 기록해라. 다섯째, 책을 읽고 난 후에 쪽지 보고서를 제출해라. 느낌이나, 머리에 남는 내용, 혹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 등 무엇이든 괜찮으니 자유롭게 쪽지에 적어서 내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성인의 학생들에게 이런 유치한 숙제를 내시나, 하는 생각과 그래도 이런 숙제를 내시는 이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숙제를 시작했다. 이것은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어보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낀다. 첫째,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어색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고, 또 내 목소리를 듣는 것도 낯설고 거슬렸다. 둘째,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묵독은 늘 하던 습관이었고, 눈으로 읽으니 중간중간 끊길 일도 없다. 그러나 낭독은 한자한자 소리를 내야하고, 또 읽다 보면 틀리기도 하여서 집중력을 더 필요로 했다. 셋째, 스스로 발음의 문제를 알게 된다. 소리 내어 읽다 보니, 평소 말을 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정확하지 않은 발음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발음에 한층 신경을 써서 읽게 되었다. 넷째, 방해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휴대전화 진동소리, 문들 노크하는 소리, 잡념들이 순간순간 성경읽기를 방해하고 흐름을 끊었다. 오롯이 성경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차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도 교수님께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숙제를 내셨다고 생각하게 된다.

### 목독 말고 소리 내서 읽기

“소리 내서 읽기”의 유익한 점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다. 심지어 ‘소리 내서 읽기’는 두뇌의 활성화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읽기 방법이 성경 읽기에도 반영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낭독’에 대한 서적을 검색하던 중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하여 첨부한다.

‘읽기는 스포츠’라고 주장하는 독서 교육 전문가들이 있다. 읽기에도 단계별 숙달 과정이 있다는 점, 큰소리를 내면서 오랜 시간 바른 자세로 읽을 경우 신체의 에너지 소비가 상당하다는 점 등이 스포츠와 닮았다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스포츠도 익히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읽기도 반복 훈련을 하면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하거나 수련을 하듯이 책을 읽는 생활을 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읽기가 스포츠라는 주장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듯싶다.

특히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매일 책을 읽어주게 되면 아이들의 독서습관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화 하기 쉬운 책을 골라 읽어주면 아이들이 문장을 들으면서 이미지, 소리, 냄새 등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미지화 능력’을 기르는 읽기는 상상력을 길러주는 데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책 중에서는 어른이 읽어도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정성껏 골라 읽어주면 좀 더 읽어달라는 아이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게 된다.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리 내 읽는 게 유리하다고 한다. 소리내어 읽을 때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뇌가 활성화한다는 게 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확하고 빠르게 혀를 놀리는 과정, 다음에 읽을 것을 보면서 준



비하는 과정 등이 뇌의 이런 활성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81</sup>

이처럼 묵독 중심의 읽기에서 벗어나 소리 내어 읽는 것, 즉 음독을 비롯처럼 하는 게 좋다. 소리 내어 읽는 게 좋은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내뱉고 자신의 귀에 들어간 표현은 기억하기 쉽다. 하나의 감각을 쓰는 것보다 여러 개의 감각을 동시에 쓰는 게 인간의 뇌를 더 많이 자극하게 하고, 결국 읽은 내용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한다. 음독을 하면 주의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리 없이 읽으면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문장도 소리 내 읽으면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

뇌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리 내 읽는 게 유리하다고 한다. 눈으로 문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것을 머릿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묵독’이라는 읽기 방법이라면, 눈으로 입력한 정보를 머릿속으로 정리하여, 그것을 입으로 발성하고, 또 입 밖으로 나온 소리를 자신의 귀로 듣는 것이 ‘낭독’이기 때문에, 묵독보다 복잡한 시스템이다. 뇌는 복잡한 시스템을 즐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리 내어 읽을 때와 속으로 읽을 때, 뇌의 거의 같은 부분이 움직이지만, 소리 내어 읽을 때 움직이는 범위가 더욱더 넓고, 귀를 사용하기 때문에 뇌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다.<sup>82</sup> 가와시마 류타의 연구에 의하면 “소리 내어 읽으면 대뇌의 70% 이상의 신경 세포가 활발히 움직인다” 고 한다. 또한 “낭독의 속도를 높이면,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 글자씩 천천히 읽기보다 되도록 빨리 읽는 것이 뇌의

<sup>81</sup> 김창석,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30856.html> (2020년12월2일 접속).

<sup>82</sup> 가와시마 류타, 가와시마 히데코, *충명한 두뇌를 가진 아이 평범한 두뇌를 가진 아이*, (경기: 사과나무, 2007), 26.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sup>83</sup>고 말한다.

음독하면 자신의 읽기 능력도 점점할 수 있다.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서 듣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는다면 글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뜻이다. 반면에 더듬거리면서 끊어질 듯하게 읽으면 문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sup>84</sup> 문장의 구조에 맞춰 숨을 조절해가면서 읽어야 훌륭한 읽기다. 어려운 대목을 만나면 천천히 읽고, 쉬운 장면에서는 빨리 지나가도록 읽는 것이다.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읽기가 자연스러운 사고를 키운다.<sup>85</sup>

‘소리 내어 읽기’는 이처럼 얻을 점이 많은 독서법이다. 반복하면 집중력과 기억력도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시작 전에 아이들에게 2~3분간 가능하면 빠르게 낭독을 시켜 두뇌의 ‘준비체조’로 삼는 선생님이 늘고 있다고 한다. 공부하는 힘을 근본적으로 기르기 위해서 음독 활동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면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낭독은 뇌를 단련 시켜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낭독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지름길은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책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른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빠르게 읽도록 한다. 그렇게만 해도 뇌의 운동이 되는 것이다.<sup>86</sup>

---

<sup>83</sup> Ibid., 27.

<sup>84</sup> 김창석,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30856.htm>(2020년12월2일 접속).

<sup>85</sup> Ibid.

<sup>86</sup> 가와시마 류타, 가와시마 히데코, *총명한 두뇌를 가진 아이 평범한 두뇌를 가진 아이* (경기: 사과나무, 2007), 60.

## 휴대폰 대화 앱을 이용한 성경 읽기

군인교회가 어린이 성경 읽기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휴대전화이다. 한국의 어린이들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 소유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부모님들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 ①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을 편다.
- ②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열어 녹음을 시작한다.
- ③ 성경을 낭독한다.
- ④ 성경을 읽기가 끝나면 녹음 내용에 그날 읽은 책의 장수를 표기하여 저장한다.
- ⑤ 저장 내용 Kakao Talk “어린이 성경 통독” 단체방에 올린다.
- ⑥ 담당 교역자와 교사는 녹음 내용을 확인하고 칭찬과 격려의 문자를 남긴다.
- ⑦ 주일에 읽은 장수만큼 달란트를 지급한다.
- ⑧ 상반기 하반기 달란트 시장을 통해 수고를 보상한다.

처음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 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과연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파일을 올려 줄까? 그런데 “언제부터 읽으면 돼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돼요?” 이미 공지한 내용을 못 들었는지, 꼬치꼬치 캐묻던 어린이 한 명이 주일이 다 가기도 전에 마태복음 1장을 읽어서 녹음한 파일이 단체 카톡방에 1등으로 올라왔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톡방에 파일이 업로드된 것이다. 놀라움과 떨림과 기쁨으로 녹음 파일을 들어보았다. 기가 막혔다. 어린이가 낭랑한 목소리로 성경 읽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소리는 없을 것이다. 그 감동을 담아 폭풍 칭찬의 댓글을 달았다. 필자는 물론이고 또한 모든 교사가 파일을 보자 마자 칭찬의 말을 전했다. 그야말로 카톡방이 한 명의 어린이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축제의 장이 되어버렸다. 그러자 두 번째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처음보다 더더욱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역시나 놀라움과 기쁨으로 또 칭찬의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한두 명씩 시작한 녹음 파일이 경쟁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선생님들과 필자의 칭찬 댓글도 함께 올라왔다. 그러면서 95.45%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처음 시작은 마태복음만 해보자고 시작한 일이 마태복음이 끝나자 마가복음도 읽느냐는 문의가 올라왔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해보자고 격려했다. 몇 명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읽기를 이어 나갔다. 이쯤 해서 선물을 제안했다. 공관복음을 다 읽어보자. 다 읽은 친구들에게 멋진 선물이 기다릴 것이다.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달란트 2장을 상으로 주었는데 선물까지 준다는 제안에 아이들이 도전을 받았다. 그렇게 시작해서 마태복음 만을 읽은 어린이가 22명 중 21명의 어린이가 읽기 시작했고 13명이 완독, 18명 절반 이상 읽었다. 95.45% 음독률이다. 마가복음은 22명의 어린이 중 10명의 어린이가 완독. 45.45%. 공관복음 읽기를 마치고 창세기를 읽기를 다시 시작했다. 창세기를 읽은 어린이는 23명 어린이 중 16명, 59.56%, 출애굽기 27명 중 16명 59.25%, 레위기 14명, 51.85%. 민수기 27명 중 19명 70.37%의 어린이가 참여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성경 읽기는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 공관 복음 읽기를 마치고 통설교 이후 교회 학교 공과가 모세 오경이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다시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성경 읽기는 계속되고 있다.



&lt;표5&gt; 통성경 읽기 기록표 - 마가복음

		통성경 - 마가복음 - (2018.12.1.~2018.12.19)															
반	이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곽은지																
	김문주																
	서채연	12/3	12/4	12/4	12/5	12/6	12/6	12/9	12/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7	12/18
	신예슬	12/2	12/3	12/4	12/6	12/6	12/7	12/9	12/9	12/10	12/11	12/11	12/12	12/13	12/16	12/16	12/16
	유 은																
	윤민석																
2	조하민																
	이 선	12/4	12/4	12/4	12/4	12/4	12/5	12/5	12/6	12/6	12/7	12/7	12/7	12/7	12/7	12/7	12/7
3	김민찬	12/7	12/8			12/9	12/9	12/10	12/10	12/10	12/11	12/11	12/12	12/12	12/13	12/14	12/14
	박성은	12/4	12/4	12/5	12/5	12/6	12/7	12/9	12/9	12/11	12/11	12/15	12/15		12/16		
	윤영선																
	유은재																
	전수아	12/1	12/2	12/2	12/3	12/5	12/6	12/7	12/7	12/10	12/11	12/12	12/12	12/14	12/14	12/15	12/16
4	김하민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10	12/11	12/11	12/14	12/14	12/17	12/18	12/18
	서준오	12/1	12/3	12/3	12/4	12/4	12/5	12/5	12/5	12/6	12/6	12/7	12/7	12/10		12/10	
	유준서																
	윤소현																
5	김하은	12/2	12/3	12/4	12/5	12/6	12/7	12/7	12/9	12/10	12/11	12/12		12/14	12/18	12/19	12/19
	이 진	1/11		1/11													
교사	남영숙																
	김영은																

### 성경 읽기가 가져온 변화들

어린이 성경 읽기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교회 안에 작은 바람을 일으켰다. 어린이 성경 읽기 카톡방이 입소문을 타고 묵독 중이던 엄마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여기저기 성경 공부 방에서 성경 읽기 카톡방이 열렸다. 기왕에도 성경공부에 열정적이던 교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다. 카톡방 성경 읽기가 가져온 변화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 성경을 가까이

“우리 애들이 성경을 끼고 살아요.” 교회학교 어린이의 엄마가 했던

말이다. 요즘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예배P.T. 화면으로 다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도신경, 교독문, 찬송가, 말씀 본문 그리고 광고까지 앞에 띄워진 화면에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나마 성경을 들고 교회로 오는 교인들의 마음에는 ‘전쟁터에 총을 빼놓고 갈 수는 없다’는 신앙의 양심이 작용한다. 어린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일에 찾아서 들고 왔다가 말씀을 읽을 때 한 번 펴서 읽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한 주간 책꽂이에 고이 모셔 둔다. 그런데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자연스레 성경을 가까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어린이들은 매일 한 번씩 성경을 손에 잡게 된다. 성경이 더 이상 주일에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 주중에도 꼭 읽어야 하는 책이 된 것이다. 또 성경 읽기를 하루 이상 밀려 버리면 그 다음날 읽어야 할 분량이 두 배가 되는 것도 스스로 알게 된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게 되고 이제는 성경 읽기가 더 이상 부담스럽고 힘든 숙제가 아니라 매일 읽어야 할 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의 후손이 잊지 않도록 날마다 잘 가르쳐서 ‘기억’ 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을 읽는 것이다. 특히 반복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저절로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가와시마 류타 교수는 “전두엽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읽어주거나 낭독을 시킴으로써, 인물 관계나, 스토리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차분히 낭독하면, 엮혔던 관계들이 슬슬 풀려 잘 정리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지라도 가까이해서 자꾸 읽다 보면 어린이의 머릿속에 슬슬 풀려 잘 정리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가까이하고 늘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크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러기에 성경 읽기를 하면서 가장 듣기 좋았던 말, 그것은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해요’이다. 들고 만 다니던 책에서 읽는 책이 된 것이다.

### 자기 목소리 교정하기

어린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 특히 책 읽는 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 읽기를 하게 되니 자기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어린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자신의 녹음파일을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단체 카톡방에 파일이 올라오게 되면 누군가는 듣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읽은 파일을 점검해보는 것이다. 4학년의 여자 어린이는 6번까지 다시 녹음해서 제일 좋은 파일을 올리더라고 그 어머니가 전해주었다.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 후로도 그 어린이는 마음에 들 때까지 읽어서 올렸다.

앞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신의 잘못된 점을 교정해 나갔고, 그에 따라 자신의 발음, 읽는 속도, 띄워 읽기 등을 교정하며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려서 자신의 동영상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서 발달에도 좋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성경을 읽으면서 귀로 한 번 더 듣고, 다 읽고 나서 올리기 전 또 한 번 듣고, 올리고 나서 다른 친구들의 음성을 또 들어보니 반복 학습의 효과도 있다.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재능도 알게 되었다. 마치 아나운서처럼 좋은 발음과 음성으로



아주 잘 읽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특별히 성경 봉독이나, 책 읽어주기 같은 활동도 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읽기 능력의 발전

읽기 능력은 개인별로 아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처음부터 아주 읽기가 잘 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한 글자 한 글자를 아주 힘들게 읽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 어머니의 표현을 빌자면 “성경 한 장 읽고 나면 온몸에 땀이 날 만큼 힘들어해요.” 라고 했다. 모두가 쉽고 재미있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읽기 싫어하는 어린이, 후딱 해치우는 어린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후루룩’ 읽어 버리는 어린이 등 어린이들의 성향은 참 다양하다. 그런데 이렇게 더듬거리고 읽기 힘들어하던 어린이들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읽기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고, 또 쉬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읽기가 쉬워지자 재미가 따라왔다. 재미가 따라오고 칭찬을 듣게 되면 하루에 다섯 장 10장도 힘들이지 않고 읽어낸다. 아래의 표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의 읽기 능력의 향상 과정을 녹음자료를 바탕으로 기록해보았다.

<표6> 이선 어린이 성경읽기 녹음 파일 오독 분석표

이름	날짜/ 성경 본문	소요 시간	오독 내용	요약
이선 (초등 2학년)	18.11. 04 마태복 음1장 (25절)	8분29초	오독 횟수 28회 1.야곱-야곰 2.람을 낳고-하람을 낳고 3.아미나답-이미나답 4.이새를 낳고-셋을 낳고 5.요람-요라 6.아하스-히아스 7.므낏세-므라네 8.낳으니라-낳으리라 9.엘르아살-엘르아사 10.낳았으니=낳으니라 11.엘네대요- 열대대요 12.동거-동어 13.약혼-야곤	1. 속도- 느린 편 2. 띄워 읽기-잘 안 되는 편임 3. 읽기에 자신이 없음

			14.동거-동거리 15.성령-성경 16사람-삼람 17.하여-하며 18.마리아-마리가 19.것이다-것있다 20.그가-그자 21.하니라-하리라 22. 이일을-이 일, 일을 23. 이름을-아들을 24.전능하신-전역하신 25.왔으나-왔으니 26.날기까지-나기까지 27.아니하더라-아니하더니 28.예수라 하라-예라라 하나	4. 어머니의 지도.
18.12.04 마가복음3장 (35절)	8분42초	오독횟수 13회 (10장 더 많은 분량이나 오류 회수 절반이상 줄었다)	1. 고치시는가-고치시은가 2. 회복되었더라-사, 회복되었더라 3. 예루살렘-예수살렘 4. 건너편과- 건너편가 5. 자들을-자들, 자들을 6. 내쫓는-쫓, 내쫓는 7. 세베대-세대 8. 바들로매-바들로매 9. 시몬에게- 시몬이여 10. 붙들러-붙들어 11. 셀수없고- 설수 있고 12. 영원한 죄가-영원한 자애가 13. 함이러라-함이더라	1. 속도-약간의 변화 2. 띄어 읽기-잘 안됨 3. 읽기에 망설임 없음 4. 혼자 주도적으로 읽기
18.12.06 마가복음 8장 (38절)	8분04초	오독횟수 5회	1. 있는지-있는, 2. 굽겨-굴겨 3. 수근거리기를-수근 거리더, 수근 4. 눈에 침-눈을 침 5. 인자도-이라도	1. 속도-조금 빨라진 게 느껴짐 2. 띄워 읽기 향상됨 3. 재미 있게 읽음

이 어린이는 한 달 만에 오독 횟수가 절반 이상 줄었고, 한 달이 이후에는 눈에 띄게 잘 읽게 되었다. 속도도 조금씩 빨라졌고, 단어도 비교적 틀리는 횟수가 적어졌다. 특히 한글은 물론이고 외래어에 약했던 띄워 읽기가 나아지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난 후 이 어린이의 목소리에서 자신감마저 느껴졌다. 더 이상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 것이다.

또 한 어린이는 5학년 남자아이로 성경 한 장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 어린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를 거듭할수록 읽기 속도가 빨라지고, 발음이 또박또박 해졌다. 어린이들의 읽기 훈련은 사실 좋은 기회가 되거나 의도적으로 시도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특히 어린이의 읽기 능력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읽기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도하는 부모님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면 당연히 읽기 능력도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음을 청년부 지도를 하면서 느끼게 된다. 청년부 친구들이라고 다 잘 읽는 것은 아니다. 발음, 띄워 읽기, 낭독 능력은 그냥 저절로 향상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린이들의 음독 능력의 향상은 의도성을 갖지 않은 시도에 따른 결과이기에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좋고, 읽기 훈련도 되니 더 좋고, 이러한 음독이 뇌를 활성화한다고 하니 얼마나 유익한가?

### 성경 읽기 경쟁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가 아침 경쟁이 시작되었다. 하루는 출근도 하지 않은 시간에 파일이 올라왔다. 깜짝 놀라서 ‘아침에 읽어서 올린 것인지 어젯밤에 읽었는데 늦어서 아침에 올린 것인지?’ 를 물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답글을 올렸다. “아이가 성경 읽는 소리에 잠이 깬어요” 어제 읽지 못한 성경을 읽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성경을 읽고 아침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번 폭풍 감동, 폭풍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교회학교 어린이의 성경 읽는 소리를 듣는 행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자 이번에는

아침에 첫 번째로 성경 올리기 경쟁이 벌어졌다. 교회학교 5학년 김하은 어린이는 눈을 뜨자마자 졸음이 채 가시지 않은 잠긴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서 파일을 올렸다. 그리고 자기가 일 번이라고 설레발을 떨지도 않았다. 조용히 자신이 일등으로 올렸다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5학년다운 자신감이었다. 그러나 하은이는 잠들기 전에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잠자리에 드는 치밀함(?)이 돋보였다.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가? 4학년 서준오 어린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한 책씩 앞서서 읽었다. 성경 읽기 표를 보면 보통 하루에 2장 내지 3장을 읽다가 나중에는 5장 10장씩 읽어갔다. 그러니 자연스레 성경을 한 책 정도 앞질러 나가곤 하면서 자신의 능력치를 갱신해 나가면서 달란트도 모았다.

딱 1학년이 된 어린이들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작은 입으로 성경을 읽는 모습, 그 목소리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특히 1학년 사이에는 그들의 어머니들의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다른 어린이에게 많이 뒤졌더라도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들의 성경 읽기를 격려하며 지도해준 어머니들의 수고 덕분에 모두 함께 참여하는 성경 읽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열린 단체 카톡방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 모두가 뻥뻥 보이는 단체 카톡방에 내 아이의 목소리만 빠진다는 것, 특히나 성경 읽기 방에서 내 아이만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경 읽기는 많은 면에서 우리들 서로를 즐겁고 행복하게 했다. 물론 숙제가 주는 스트레스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지만, 그 많은 요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아이들의 성장은 정말 예상하기 어렵다.

### 학교에서 받아쓰기 능력의 발전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제가 공부시킨 것도 아니고, 평소 받아쓰기를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50점 60점 받았어요. 아무래도 성경 읽기 영향인 것 같아요.” 남자 2학년 어린이의 엄마의 말이다. 대체로 남자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 언어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인지 위의 어린이도 평소에 말이 느리고 발음이 약간 정확하지 않았다. 심지어 비염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 동안 코가 불편해서 힘들게 읽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다. 그런데 성경 읽기를 정말 열심히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 소리로 부모님의 잠을 깨우는 어린이 중의 한 명이었다. 이 어린이가 정말 일취월장 좋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류타 교수는 소리 내서 읽는 것은 전두엽을 자극해서 뇌를 더 활성화하며, 또한 “낭독을 하면 전두엽과 베르니케 영역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절로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sup>87</sup>고 말했다.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없다고 해도 매일 낭독을 통해 뇌를 활성화해, 받아쓰기 능력이 저절로 향상되었다. 학교 성적이 성경 읽기의 최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린이 자신과 학부모 그리고 교역자를 신나게 한다.

###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어린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인 일이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줄기를 잘 연결해서 들려주고, 주중에는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를

---

<sup>87</sup> 가와시마 류타, 가와시마 히데코, *충만한 두뇌를 가진 아이 평범한 두뇌를 가진 아이*, (경기도: 사과나무, 2007), 60.

성경으로 읽는다. 그렇게 어린이들은 성경 이야기를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두게 되는 것이다. 한 주가 지나고 어린이들에게 지난주 성경 이야기를 퀴즈로 묻는 시간이 있다. 놀랍게도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다. 가령 땅 분배가 ‘공평이 법칙’에 의해 분배되었다는 것. 공평한 분배는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분배된 것 등등. 지난주 이야기를 퀴즈로 물어보면 어린이들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새어 나오곤 한다. 또 성경 퀴즈를 대비해 지난주 말씀 부분을 미리 읽는 준비를 하는 어린이도 있다.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학습의 효과는 가장 크다. 성경 통독과 통성경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유익은 성경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들려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들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제 VI 장

### 통성경 체험학습(행동 학습)

#### 여름성경학교 기획 의도

강문규는 그의 논문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 수업에 있어서 이적 기사에 대한 설명 이해-마가복음 2:1-12에 나오는 중풍 병자의 치유 이적을 중심으로” 에서 “어떻게 하면 이적 기사를 청소년들의 기독교 교육 수업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가?”<sup>88</sup>라고 질문한다. 필자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아동부의 기독교 교육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가?” 강문규는 위의 물음에 대해 교수법과 방법론 차원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였다. 그 첫 번째가 ‘이적 기사’ 라는 테마를 가지고 실제로 경험했던 것, 또는 신문으로 입수한 것들, 그리고 TV-뉴스들을 통해 “중풍 병자 치유 이적” 과 비교해서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이적 기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기사를 신뢰하고 그것이 실제적인 행위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sup>89</sup>

이렇게 이적 기사를 경험하고 신앙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 후, 둘째, 이적 기사를 실제로 재현해 보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모형의 집에 올라가 망치로 지붕을

---

<sup>88</sup> 강문규,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교육 수업에 있어서 이적기사에 대한 설명 이해-마가복음 2:1-12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치유 이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65호(2009), 391.

<sup>89</sup> Ibid., 392.

부수고 합심하여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리는 이적 기사를 몸소 재현해 보는 것은 청소년들의 신앙 학습을 위해 매우 유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90</sup>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중풍 병자의 친구들과 예수가 실제로 행동했던 것처럼 재현해 봄으로써 청소년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이적 기사를 현실화 할 수 있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그 병자를 위해 직접 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장화선, 김난예는 “유아기의 어린이들의 놀이는 모방과 사회화가 그 목적이라면 아동기의 어린이들은 지적, 정서적, 신체적 기능의 놀이를 수행하면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습득하며 자라는 것이다.”<sup>91</sup>고 했다. 어린이들은 아동기 동안에 성경에 관해 배우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비록 그들이 읽고 들었던 함축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수용하려 한다. 종교교육자들은 성서를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 관념으로 생각하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신앙 교육에서 관건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서적 가치들을 체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sup>92</sup>

여름 성경학교는 바로 이러한 제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계획하게 되었다. 말씀 먹이기 첫 번째 단계는 통설교였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라는 주제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말씀 먹이기 두 번째 단계는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다.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지라도 직접 읽는 행위는

---

<sup>90</sup> Ibid., 392.

<sup>91</sup> 장화선, 김난예, *기독교 아동교육* (서울: 2008), 312.

<sup>92</sup> Ibid., 314.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 먹이기 세 번째 단계는 성경의 이야기를 재현해 보는 것이다. 구약의 시대와 상황을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는 어떤 어려움이 따르고 무엇을 극복해야 하며, 서로 협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놀이를 통해 생각하고 습득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하겠네요”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어느 선생님이 했던 말이다. 평생 잊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어린이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만 기억해도 학습의 가치는 충분하다.

## 체험학습 준비

### 1부 퀴즈 골든벨

- 스케치북, 또는 소형 화이트보드 (어린이 숫자만큼), 보드 펜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으로 잡았다. 1부는 ‘골든벨’ - 구약의 세계-편이다. 상반기 동안 진행된 통성경 설교 중 구약의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다. 퀴즈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두 번 진행한다. 어린이들 개개인에게 스케치북 또는 소형 화이트보드를 나누어 준다. 준비된 퀴즈를 내고 어린이들이 스케치북에 정답을 써서 다 함께 들어 올리게 한다. 정답을 맞추지 못한 어린이는 열외로 하여 마지막 3인이 남을 때까지 퀴즈를 풀게 된다.

### 2부 제사장 나라 법칙

제사장 나라 법칙 체험은 총 여섯 개의 순서로 준비하였다. 첫째 ‘창조의

법칙’ , 둘째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가요’ , 셋째, ‘식량의 법칙’ , 넷째 ‘만남의 법칙’ , 다섯째, ‘순종의 법칙’ , 여섯째 ‘공평분배의 법칙’ 등이다.

첫째, ‘창조의 법칙’ 은 창조 그림판 7개를 만들어 순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성경 본문 내용을 볼 수 있는 찬스를 준비한다.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순서를 그림으로 맞추면서 창조의 법칙과 창조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

둘째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가요’ 에서는 출애굽 지도를 대형 배너로 제작하여 벽에 고정한 뒤 어린이들에게 특정 장소를 호명하여 끈끈이 볼로 맞추게 한다. 선생님은 그 장소를 호명하기 전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퀴즈로 지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어린이들은 출애굽 경로의 지명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게 된다. 말 안 듣는 아이를 참고 돌보시는 엄마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갔던 일이 ‘참 힘들었겠다’ 라는 것을 느끼며, 그들을 위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생각하게 한다.

셋째 ‘만남의 법칙’ 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 회막을 직접 만들어 본다. 죄가 있는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곳, 바로 회막이다. 어린이들은 회막을 모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회막과 지성소의 구조를 알고, 이곳에서 백성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

넷째, ‘식량의 법칙’ .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기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심고 거두는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시고 직접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로 그 백성을 먹이셨다. ‘만나’ 라는 식량에는 법칙이 있다. 하루 한 호멜을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두 호멜을 거두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많이 거두면 썩고 만다. 적게 거두었다 할지라도 모자라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이 코너를 통해서 욕심부리지 않아도, 게으르지 않으면,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의 식량의 법칙을 배우게 된다.

다섯째, ‘순종의 법칙’ 이다. 어린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튼튼하고 강한 성 여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다.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침묵하며 여리고 성을 돌고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어깨를 맞추고 마음을 같이해야 함을 체험하게 된다.

여섯째 ‘공평분배의 법칙’ .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 받게 되는데, 이때 분배의 원칙이 있다. 각 지파의 인원수에 따라 수가 많으면 많이 분배 받고 적으면 적게 분배 받는 것이다. 그리고 땅의 선택도 제비 뽑기를 통해 공평하게 나누게 하셨다. 어린이들은 땅의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공평하심을 알게 된다.

## &lt;표7&gt; 18년 여름성경학교 기획안

## 18년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기획안

### □ 개 요

- 주제 : 하나님의 마음 (창1:31)
- 목표 : 18' 진행중인 통성경학교 스토리 학습을 행동학습으로 구성해서 간접체험하게 하여 스토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도록 한다. (창~수)

### □ 일반계획

- 기 간 : '18. 8. 3(금) ~ '18. 8. 4(토)
- 장 소 : 아동부 예배실
- 참석인원 : 39명 (아동 20명 / 청소년부 8명 / 교사6명, 2명 / 보조교사2명)

### □ 세부계획

일시	8월3일 (금)	8월4일 (토)
9:00~9:30	접수 및 등록	찬양&운동
9:30~10:00	찬양&운동	도전 골든벨
10:00~10:30	여는 예배팀과위 & O.T	
10:30~11:50	골든벨 - 구약의 세계	코너학습
12:00~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16:00	ㅇ 코너학습 1. 하나님의 창조 2. 출애굽경로 3. 식량의 법칙-음식은 누가 주시나 4. 하나님과의 만남의 법칙-성막이 뭐야? 5. 법칙-여리고성 전투 6. 공평의 법칙-땅분배순종의	아이성 전투
		신나는 물놀이 및 귀가
16:00~17:00	평가 및 교사회	

### □ 예산계획-별지 첨부 (아동부, 청소년부)

### □ 행정사항

- 가정통신문 / 참가신청서 배부 : '18. 7. 15. (주일)
- 신청서접수 : '18. 7. 22. (주일)
- 이동수단 : 훈련소 차량
- 필요물품 : 성경, 여분의 옷, 수건

## 6개의 코너 만들기

### 1. 창조의 법칙 - 창조 그림판 7개, 힌트 말씀 판

준비물 - 창조 그림 7장(크기-A4 2/3), 창조 본문 말씀 7개(A4 1/3), 폼보드 7장(A4), 코팅 필름 7장(A4),

창조 본문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터넷을 검색하여 7장의 그림을 준비한다. 참고로 필자는 인터넷을 검색하였는데 다양한 종류의 창세기 순서를 그려 놓은 그림들이 있었다. 형상을 단순화시킨 그림부터 만화, 사진 등이 있는데 대상 아동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여 사진을 출력했다. 출력한 그림을 A4 2/3에 위치시키고, 나머지 1/3 부분에 창세기 본문을 삽입하여 완성한다. 이때 본문의 내용 중 날에 관한 구절은 빼다. 완성한 그림을 코팅기에 넣어 코팅한 후 A4 폼보드에 맞추어 풀이나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여 잘 부착한다. 단 안식일은 그림만 넣는다. 안식을 상징하는 그림이면 된다.

힌트를 위해서 창세기 1장 창조 부분의 말씀을 A3 용지에 출력하여 글씨가 보이지 않도록 겹장을 부착한 후 게임을 설치할 장소의 한쪽 벽에 붙여 놓는다.

### <그림2> 코너 학습 준비 - 창조의 법칙 그림판



2. 출애굽 경로를 따라가요 - 출애굽 지도와 끈끈이 공, 지명 퀴즈 문제, 애굽 경로 지도

출애굽 경로 지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명과 그 지명에 그림까지 첨부되어 있는 지도가 있는데 각자 필요한 것으로 출력한다. 지도는 간판이나 광고물을 제작하는 공장에 의뢰하여 가로세로 150~ 200 이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다. 공간에 맞게 제작하되 끈끈이 공을 던져서 지명을 맞출 수 있는 크기가 되면 좋다.

끈끈이 공 4개를 구입하는데 만약 끈끈이 공이 없다면 짝짝이 공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때 짝짝이 공이 지도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짝짝이 테이프를 지명을 뺀 지도의 표면에 붙여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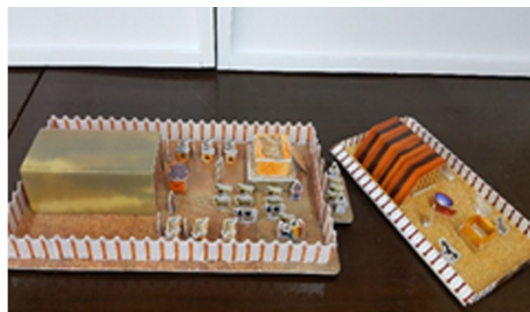
3. 식량의 법칙 - 만나 줍기 판, 호멜 바구니, 거둔 호멜을 모을 지퍼백(어린이들이 거둔 만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

만나 줍기를 위해서는 만나를 뿌려 둘 판이 필요하다. 폼보드를 이용하여 넓은 판을 만들되 과자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포인트. 여기에 적당한 바구니 (작은 것)를 준비한다. 매일 한 호멜씩 거두고 6일째는 2호멜을 거둬야 하므로 바구니는 참가인원의 2배를 준비한다. 만남은 동그랗고 하얀 것으로 하되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좋다. 우유 칼슘이나 우유 초콜릿 등 잘 찾아보면 알맞은 것들이 있다.

<그림3> 코너학습 준비 - 식량의 법칙



<그림4> 코너학습 준비 - 만남의 법칙



#### 4. 만남의 법칙 - 성막 만들기 모형판

성막 만들기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온다. 폼보드로 만들면 시간이 절약되고 만든 후에 모양도 만족스럽지만, 가격이 좀 높다. 종이 모형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저학년 어린이들이 만들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이 다른 순서들 보다 많이 걸린다. 보조 교사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교회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폼보드 모형을 하나 만들고 종이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종이 모형을 만들어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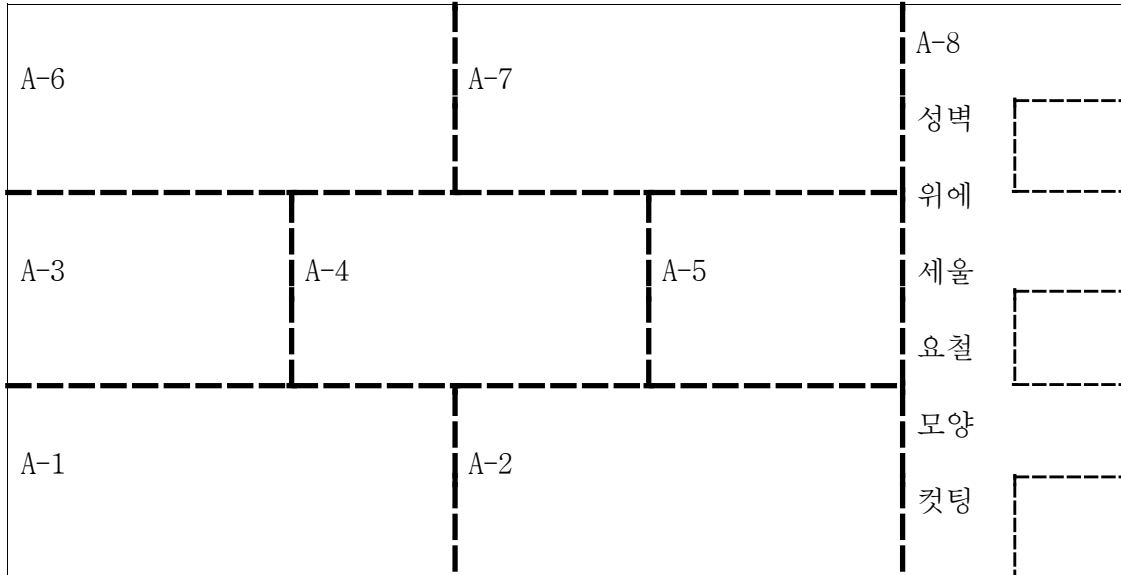
#### 5. 순종의 법칙 - 여리고성, 언약궤 만들기

재료 - 스티로폼 4장 (두께 10cm), 스티로폼 판 1장 (두께 3cm), 금색 우드락(없으면 흰색으로 만들어 금색 락카를 뿌린다) 6장(4절), 직선 열선 커터기, 스티로폼용 접착제, 성을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식들, 락카 회색 3개, 골드 2개, 언약궤를 켈 수 있는 봉 2개.

여리고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스티로폼을 철물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인터넷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스티로폼을 아래의 모양대로 자른다. 성벽 위의 요철도 아래의 모양대로 만든다. 성벽 안쪽에 번호표를 붙여준다. 그래야 성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때 번호대로 맞추어 세우기에 좋다.

<표8> 코너학습 준비-여리고 성벽 만들기 그림

성벽 4개 컷팅 (가로\*세로 90CM\*180CM, 두께 10CM 4개)



A-1,2,3,4,5,6,7,8. B-1,2,3,4,5,6,7,8. C-1,2,3,4,5,6,7,8. D-1,2,3,4,5,6,7,8.

<그림5> 코너학습 준비 - 성벽 컷팅



<그림6> 성벽 윗부분 컷팅





<그림7> 성벽 코너 기둥 만들기



<그림8> 여리고성과 언약궤 완성 모습



<표9> 여리고성 모퉁이 탑 만들기

정4각 기둥4개 컷팅 (가로\*세로\*두께 90\*180\*3CM 스티로폼 4개)

4	8
2	6
3	7
1	5

자른 조각 1, 2, 3, 4를 스티로폼 접착제로 붙여 기둥을 만들고 기둥의 위쪽에 5, 6, 7, 8을 기둥 곁면에 붙여 망루와 같은 입체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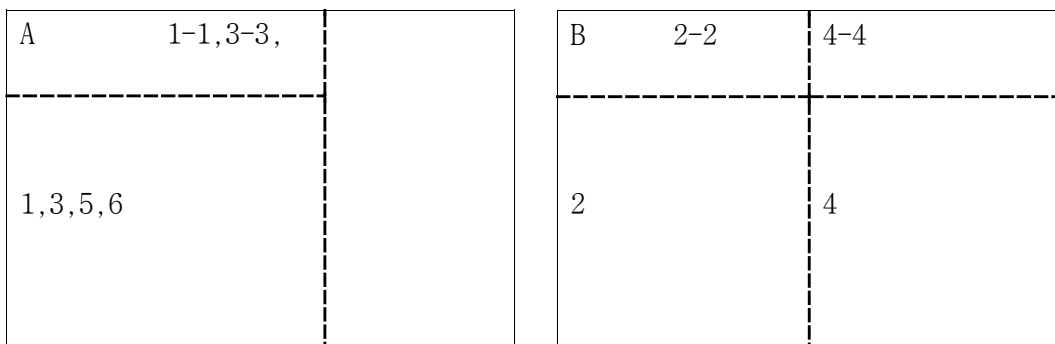
성벽을 설치한 후 안에서 뉘싯줄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해 준다. 하나만 슬쩍 밀어주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주변에 만든 나무나 화분 등을 세우고 울타리 등을 더하면 좀 더 보기 좋다.

### 법케 만들기

재료 - 금색 우드락 6장, 가로\*세로\*두께 40CM\*60CM\*5mm (금색 우드락 없으면 흰색 우드락 6장으로 대체, 금색 락카), 채(나무 채 길은 것-재료상에 있음), 채를 쥔 고리 4개 (성벽 만들고 남은 폼보드로 만듦)

폼보드를 아래의 크기로 자른다. 1, 2, 3, 4 조각을 폼보드 본드로 붙여 케를 만들고, 5번을 뚜껑 부분에, 6번 조각을 바닥 부분에 붙여 정육면체를 만든다. 1-1, 2-2, 3-3, 4-4를 법케 위쪽에 맞추어 테두리를 둘러준다. 성벽을 만들고 남은 두꺼운 조각을 열선으로 잘라 고리 모양으로 4개를 만든다. 두꺼운 폼보드 조각으로 법케 위에 그룹을 만들고 흰색 우드락으로 날개를 4개를 만들어 그룹에 붙여 준다. 고리를 케에 본드로 붙이고 대나무 핀을 고리와 케에 깊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준다. 채를 쥔면 완성. 케가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협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표10> 코너학습 준비 - 연약케 만들기



#### 6. 공평의 법칙 - 분배된 땅 모양의 퍼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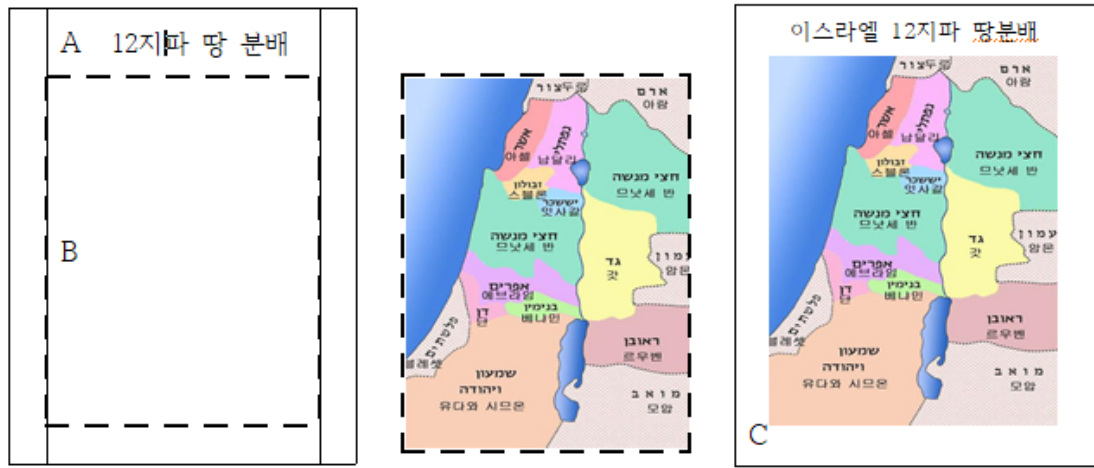
우드락 두 장, 열선 커터기,

2c안쪽에 테두리 선을 그려준다. 테두리 선을 잘라낸다. 잘라낸 테두리 선을

다른 폼보드에 붙인다. 테두리를 잘라낸 폼보드에 출력한 지도의 밑그림을 그려준다. 지도 밑에 먹지를 대고 그리면 쉽다. 폼보드에 그려진 지도의 경계선을 따라 열선으로 잘라준다. 지도의 조각에 각기 다른 색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칠해준다. 지도위에 각 지역의 이름을 붙여준다.

<표11> 12지파 땅 분배 퍼즐 만들기

폼보드



<그림9> 코너학습 준비-공평의 법칙, 땅 분배퍼즐



## 여름성경학교 코너학습의 실제

### 2018 여름성경학교 코너 학습 진행요령

#### 코너 학습 진행 요령

1. 질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합니다.
3. 게임의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즐기도록 유도합니다.
4. 먼저 자신의 코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멘트 암기)

#### 1. 창조의 시간 속으로

어린이들이 도착하면 질서 있게 도착한 팀에게 20점을 먼저 준 후, 게임 요령을 설명해준다. (이때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

☞멘트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7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 그 창조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창조의 순서대로 맞추어 주세요. 준비 되시면 스톱위치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림을 다 맞추셨으면 "stop"을 외쳐 주세요. 만일 정답이 아니면 이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창조의 순서를 맞추어 주시고

‘스톱’을 외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테이블 앞으로 와주세요.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스톱위치와 동시에 시작!)

(준비물- 1. 테이블 2. 창조 그림 7개, 스톱위치, 장소: 1층 성가 연습실 옆)

<그림10> 코너 학습 - 창조의 법칙에 임하는 자세



<그림11> 창조의 시간 - 그림 배열을 고민하는 1학년 어린이



### 2018 여름성경학교 코너 학습 진행 요령

#### 코너 학습 진행 요령

1. 질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합니다.
3. 게임의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즐기도록 유도합니다.

4. 먼저 자신의 코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멘트암기)

2.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가요.

\*\*아이들이 도착하면 질서 있게 도착한 팀에게 20점을 먼저 준 후, 게임 요령을 설명해 준다. (이때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

☞ 멘트-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듣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하게 하셨어요. 여기 지도는 그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 이동했는지 나타내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을 두 개씩 드릴 거예요. 그 공으로 제가 호명하는 지명을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근접하게 맞추면 스티커 2개 다른 지명을 맞추면 스티커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준비물- 1. 출애굽 경로 지도(벽에 고정)

2. 끈끈이 공 (한 선수에게 공 2개씩을 쥐서 점수를 합산한다.)

장소: 식당

1) 팀을 한 줄 서기 한다.

2) 게임 선생님이 지명을 주문하면 아동은 그 지명을 외치면서 공을 던진다.

예) 선생님: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달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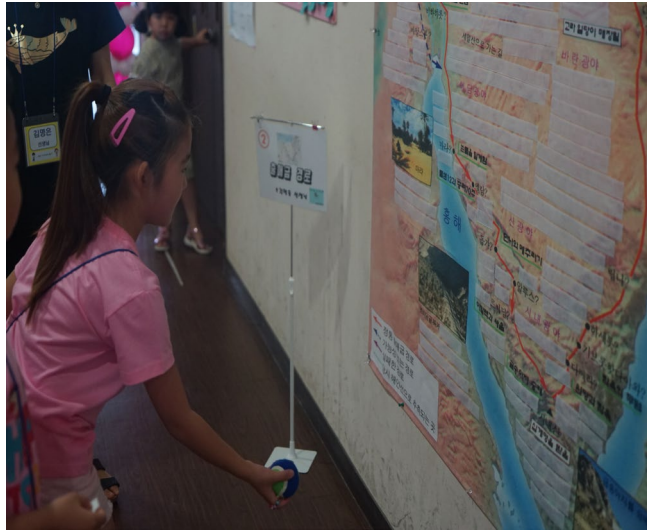
학생: 정답) 기브롯 핫다와!

3) 정답 지명을 외치면서 공으로 지명을 향해 던진다.

단, 지명을 외치지 않고 공을 던지면 무효. 다시 던지게 한다.

4) 팀별로 점수를 계산하여 스티커를 준다.

<그림12> 출애굽 경로를 따라가요



<그림13>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였더라?



### 3. 식량의 법칙

\*\* 아이들이 도착하면 질서 있게 도착한 팀에게 20점을 먼저 준 후, 게임 요령을 설명해 준다. (이때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

☞ 멘트- “친구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주셨어요. 하늘의 양식 만나에는 법칙이 있어요. 날마다 거둔다는 법칙.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는다는 법칙. 그러면 안식일에는 무엇을 먹어요? 안식일 전날에 두 호멜을 거두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만나를 거두러 갈 것인데 반드시 한 호멜을 거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나가셔서 만나 1호멜을 거두어 오세요.”

(준비물 - 만나, 만나를 뿌려 둘 보드 판, 호멜 바구니, 담아온 것을 넣을 팩)

장 소 - 2층 로비

1) 먼저 호멜 바구니를 들게 한다.

2) 준비되었으면 출발하게 한다.

3) 다 거두었으면 돌아오게 하여 확인한다. (한 호멜 씩 거두었는지 확인하고 스티커를 준다/두 개 세 개는 스티커 주지 않습니다.)

4) “이제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세요.”

5) 바구니를 두 개 가져가서 거두어 가지고 온 친구에게 스티커를 준다.

-코너가 끝나면 줄을 맞추어서 다음 코너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14> 식량의 법칙





&lt;그림15&gt; 만나는 하루 한 호멜



#### 4. 만남의 법칙

\* 어린이들이 도착하면 질서 있게 도착한 팀에게 20점을 먼저 준 후, 게임 요령을 설명해 준다. (이때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

☞멘트- “친구들! 제사장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칙이 있어요. 바로 제사를 통해 만나는 것이지요.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나요? 맞아요, 성막에서 드렸어요. 제사는 누가 드리주나요? 네 제사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준비물 - 성막 모형판, 풀 가위 등

장 소 - 1층 휴게실

- 1) 성막 모형판을 나누어 준다.
- 2)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가며 성막을 만든다.
- 3) 도우미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돕는다.
- 4)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림16> 만남의 법칙



<그림17> 완성된 성막의 모습



## 5. 순종의 법칙 여리고 성

\* 아이들이 도착하면 질서 있게 도착한 팀에게 20점을 먼저 준 후, 게임 요령을 설명해 준다. (이때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

☞ 멘트- “이제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3가지입니다. 첫째 소리를 내지 말아라. 둘째 언약궤를 앞세워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아라(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에 선다). 셋째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되 일곱째 바퀴를 돈 후에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잘 아시겠죠? 소리를 내거나, 바퀴 수가 틀리거나 소리가 작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여러분은 여리고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여리고 성을 설치, 언약궤, 어린이 성가복(제사장), 뿔 나팔.

1. 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앞줄에 선다.
2. 언약궤를 뿔 제사장 4명 선발-언약궤를 어깨에 메도록 한다.
3. 나머지 팀원들은 언약궤 뒤로 선다.
4. 이제부터 침묵!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오기(6번 반복)
4. 일곱 번째, 일곱 번 돌고 소리 지르기 (데시벨 재기)
5. 여리고성 무너뜨림(담당자)

끝나고 나면 다음 코너로 안내하기 - 땅 분배 코너

&lt;그림18&gt; 여리고 성을 돌아요



&lt;그림19&gt; 무너진 여리고 성



#### 6. 공평의 법칙 - 땅 분배 준비하기

\* 아이들이 도착하면 질서 있게 도착한 팀에게 20점을 먼저 준 후, 게임 요령을 설명해 준다. (이때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

☞ 멘트-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거주할 땅을 각 지파의 인구에 맞게 공평하게 분배 받기 위해 준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분배 받은 땅의 퍼즐을 찾아 맞추어 보세요. 퍼즐을 맞추는 시간을 측정하여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 땅 분배 지도 퍼즐, 테이블, 지도 원본

1. 먼저 원본 지도를 보여줍니다. 10초 (지명을 하나씩 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원본 지도를 덮고 퍼즐을 맞춥니다.
2. 모든 인원이 함께 퍼즐을 풀어야 합니다.
3. 지도의 원본은 세 번 보여 드립니다.
4. 지도를 보는 시간도 포함되니 모두가 같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마치고 나면 격려해주세요.

<그림20> 공평의 법칙 - 땅분배



&lt;그림21&gt;우리땅은 어디에?



###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 색다른 경험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가장 만족했던 사람들은 단연코 선생님들이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누구인가? 주일학교 학생들의 어머니이면서, 교회 집사님이고, 말씀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자기 자식들이 함께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마음과 새로운 기획에 대한 기대감이 준비단계부터 쌓여 있었다. 선생님 자신들도 처음 경험해보는 여름성경학교의 각 코너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기쁨이 있었다. 주일학교는 선생님들의 은혜가 반이다.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고, 선생님들이 먼저 만족하고, 선생님들이 먼저 신이 나면 주일학교는 저절로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신 된 교사 한 사람이 주일학교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도 함께 신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어린이들의 반응도 여러 가지였다. 그러나 첫 번째 반응은 역시 흥미로움이었다. 창조의 시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맞추어 보고, 출애굽

경로를 끈끈이 공으로 맞추며, 말로만 듣고 그림으로만 봤을 성막을 직접 만들어 보고, 광야의 만나 줍기를 실행하면서 먹을 것을 주니 역시 좋아했다. 그리고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 혹시 언약궤가 부서질까 4명의 어린이가 속도와 보폭을 맞추어 걸어가고 그 뒤를 따르는 어린이들은 침묵으로 함께했다. 말로만 듣던 땅 분배 지도를 빨리 맞추기 위해 마음도 조마조마했을 것이다. 아동들이 코너 학습을 진행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옮겨보았지만, 대다수 어린이의 반응이 ‘재미있었다’ 였다.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몇 명의 어린이가 군인교회에 정착했다. 교회를 이탈했던 여자 어린이와 부모는 군인교회에 다녔으나 다른 교회에 다니던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가 군인교회를 선택했고, 전도되어 온 여자 어린이도 있다. 어린이들에게 무슨 다른 반응을 기대하겠는가? ‘재미있는 것’ 천지인 세상에서 여름성경학교가 ‘재미있었다’ 라고 말했다면, 최고의 반응이라고 믿어도 된다.

#### 여름 성경학교가 싫은 어린이들

여기서 잠깐 ‘여름성경학교를 싫어한다’ 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한다.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에게도 중요한 행사이지만, 교육부서에서도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행사이다.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의 주제를 연속적으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경을 익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또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면서, 교회에서 이탈했던 어린이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평소 친했던 학교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상 이렇게 모인 친구들이 여름성경학교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후의 교회

출석과 예배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각 교회의 교육부서나 어린이 교회 학교는 여름성경학교에 가장 큰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름 성경학교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갔다. 새로운 것 없는 형식적 연중행사가 되어버렸다. 여름 성경학교를 거부하는 어린이의 의견 중 몇 가지만 적어보면, 첫째, 연합캠프에 대한 거부감이다. 점점 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어린이들이 연합으로 모여 낯선 어린이들과 섞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작용했다. 둘째, ‘여름 성경학교는 재미없어!’ 각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어린이들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먼저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힘들다면 신중하게 어린이 선교단체나 교단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행사 중심이 아니라 어린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이다.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에 행하는 물놀이 중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경험한 남자 어린이는 그날 이후 여름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 아이에 해당하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선생님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비는 짧고 굵게, 행사는 즐겁고 보람되게 해야 한다. 여름성경학교 준비단계에서 선생님들이 이미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이 지쳤는데 어린이가 신나기는 힘든 일이다.





학습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6. 통성경 설교로 달라진 점은?

없다, 모름, 성경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다, 쉽다, 좀 더 잘 믿게 됨, 성경 읽기가 쉬워졌다.

7. 통성경 설교를 다른 친구들에게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나요?

네 70%

많이요 10%

아니요 20%

8. 통성경 설교를 다시 계획한다면 또 들을 생각이 있나요?

네 80%

아니요 20%

9. 소리 내어 성경 읽기는 재미있었나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네 50%

모르겠다 25%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8.3%

성경을 읽게 되어서 좋았다

성경 읽기가 더 좋았다

## 10. 기타 건의 사항이 있다면?

성경이 짧았으면 좋겠음, 통성경 반복적으로 듣고 싶음(선생님), 없음  
 설문 시기가 통성경이 끝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기억이 많이 흐려져 있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더구나 통성경 설교와 여름 성경학교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군 교회의 특성상 많이 이동한 상황이어서 보다 좋은 설문이 되지 못했음을 밝힌다. 또한 설문의 내용이 통성경 설교나 여름성경학교 행동 학습의 내용을 일깨워 주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었던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

## 어린이들의 소감

어린이들의 소감을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하지 못했다. 또 아이들의 표현에 한계가 있기도 하다. 더구나 어린이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통성경 설교를 진행할 때 몇 가지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한 어린이는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기 때문에 주일에 군인교회 어린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런데 통성경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주일 아침에 교회 출석을 위해 집으로 왔다고 한다.

또 한 어린이는 주말에 통성경 어린이 책 예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린이 통성경’<sup>93</sup>을 통해서 내용을 먼저 읽고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듣게 되어있었다. 이것을 담임 선생님이 확인하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책 단원에 찍어준다. 이것을 열심히 읽고 실천하는 기특한 어린이들이 있기에 가르치는 사람도 신이 났다.

<sup>93</sup> 조병호, 어린이 통성경 (서울: 통독원, 2009).

## 교사들의 소감

어쩌면 통성경 설교의 최고의 수혜자는 선생님들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설교를 들었고, 기존에 성인반 통성경 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이기에 어린이 언어로 들려주는 통설교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한 권사님은 통성경 설교에 대한 관심과 여름성경학교 진행과정을 보며 주일학교 교사에 지원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교사들은 무엇보다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다. 특히 필자가 여름 성경학교 기획을 발표하고 선생님들 함께 준비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였다고 말했다. 하나는 ‘참 좋은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나 그것을 다 어떻게 준비하지?’ 그러나 필자의 주도하에 코너 하나하나가 모습을 드러내자 모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했고, 힘껏 협력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 낸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필자에게도 여름성경학교를 직접 기획하고 코너 학습을 설계해보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너무 쉽게 기존에 만들어진 여름성경학교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시도할 생각을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직접 기획하는 게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천로역정’, ‘십자가의 길’, ‘천국과 지옥’ 등 많은 주제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 제 VII 장

### 결론

#### 요약 및 평가

군인 교회는 일반 교회와 달리 특수한 상황에서 군 선교적 사명을 가진 특수한 교회이다. 성도에게는 물론이고 어린이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교역자의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 전담 교역자가 없다는 것이고 짧은 근무 주기에 따른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한 교회에서 지속해서 말씀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열악한 신앙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군인교회의 아동들에게 말씀으로 잘 먹일까?’ 하는 고민으로 시작하였다.

필자가 선택한 것은 1년 과정의 통성경 설교였다. 구약과 신약을 1년 동안, 부분이 아닌 전체의 이야기로, 성경 전체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역사 순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달된 이야기를 어린이 자신이 직접 성경 본문을 소리 내어 읽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1년 동안 진행된 통성경 설교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첫째, 성경 전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베스모어는 그의 책 어머니의

마음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요약본으로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요약본으로 가득 찬 책꽂이의 주인인 자신의 아이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밑줄이 잔뜩 쳐져 있는 성경책을 갖고 있고 예수그리스도에게 열광하는 신자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자녀들은 무삭제판을 원한다.”<sup>94</sup>는 것이다. 필자도 어린이들에게 무삭제판 성경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첫 번째 목표를 위해 조병호 박사의 ‘어린이 통성경’을 선택했고, 먼저 상반기는 구약의 내용을 다음 하반기는 신약의 내용을 이야기 설교로 들려주었다. 설교의 전달을 위해 많은 양의 그림을 동원하였고, 필요할 시 동영상도 첨부하여 어린이들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부모들을 따라 잦은 이동을 해야 하는 군인 교회 어린이들에게 1년의 시간은 ‘통성경 설교’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이었다.

둘째, 성경을 어린이들 스스로 읽게 한다. 어린이들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만큼이나 스스로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스스로 읽도록 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어린이들 각자가 성경을 소리 내어 읽고 녹음을 해서 ‘아동부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각자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혼자 하지만, 단체 대화방에 자신의 음성 파일을 올려놓음으로 서로의 녹음 파일을 공유하게 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불러왔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읽는 것과 같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유대감은 지속해서 계속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었다. 여기에 담당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칭찬은 어린이들이 성경읽기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좋은 격려가 되었다. 또한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에 자극을 받은 부모님들도 성경 읽기에 함께 참여하여 자녀들과 보조를 맞추어 주어 여러모로 성경읽기 붐이 일어났다. 평생 성경을 가까이하고 살아가야

---

<sup>94</sup> 베스 모어, *어머니의 마음* (서울: 좋은 씨앗, 2005), 79.

할 그리스도인에게 매일매일 성경 한, 두 장씩 읽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다.

셋째, 성경 속 이야기들을 재현해 봄으로써 오늘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본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의 상황을 좀 더 폭넓게 놀이를 가미하여 경험하게 하였다. 창조의 법칙, 출애굽 경로, 하늘 양식의 법칙, 만남의 법칙, 순종의 법칙, 공평 분배의 법칙 등 6개의 코너 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은 욕심으로, 급한 마음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하며 좀 느린 친구들을 배려하고 함께 이끌고 가야 하는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필자 자신에게나 선생님들에게나 아동들에게 뜻밖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물론 오래 지나지 않아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 제언 및 결론

통성경 설교는 군인교회에 다른 어느 교재보다 더 큰 대안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으로 성경을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통성경 설교 한 번으로 어린이들이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단박에 깨닫게 될 것으로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통성경 설교 한 번으로 어린이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리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성경 설교를 통해 전체 성경을 한 번 들어본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가 다른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큰 소리로 읽어본 경험과 그렇지 않은 경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험일 것이다. 어린이들이 집에서 성경을 찾아 읽고, 다음 읽어야 할 곳에 표를 하고, 내일 아침에 읽기 위해 성경책을 머리맡에 챙겨 두고 자는 경험을 어린 시절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아침 식사 전에 성경을 읽는 어린이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떠들떠들 외래어를 읽는 것 같았던 소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유창하지는 않지만 매끄럽게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 받아쓰기도 잘하게 되었을 때 이 소년이 느꼈을 희열을 생각해보라. 이것이 소년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다음 세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과 재정을 투입하고 문화적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를 동원하여 교회학교의 부흥에 힘쓴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레너드 스윗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다시 말해서 말세가 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둘째, 그 시대의 언어로 성경을 다시 읽는다는 것이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성경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라는 물음에 조병호는 “5세부터 가능하” ’ 고 하였다.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멀고, 아이들은 더 많이 자라야 한다. 성경에 관한 지식도 어린이들과 함께 자라가야 한다. 특별히 특수한 상황에 놓인 군인교회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교육은 꼭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는 모두 어린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어린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가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보여주자. 부분이 아닌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자. 성경의 말씀을 어린이들의 음성으로 읽게 하자. 성경을 곁에 두고 사랑하게 하자. 성경의 많은 사건을 재현하는 작업을 시도해보자. 그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하자. 그 속에서 어린이들은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리차드 콕스는 “인간의 말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이 결합된다면, 이 두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sup>95</sup>” 고 말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어린이가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어린이들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설교의 신비이다. 통성경 설교를 통해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보도록 시작해보기를 바란다.

---

<sup>95</sup> 리차드 H. 콕스, 김창훈 역, *뇌는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서울: Korean Edition, 2014), 127.

## 부록

## 부록1.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이야기

week40-\*

**어린 '이 Let' s Tong!**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이야기**

**요한복음3장16절**

**#1. 지난 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

- 말라기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답: 힘들고 지치신 모습.

- 왜 하나님은 지치고 힘든 모습일까요?

답: 1500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보여달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답: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 400년의 침묵 후에 하나님은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 주셨나요??

답: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의 탄생

## #2. 구약에서 신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400년  
 구약 이야기의 끝은? 페르시아 제국, 마태복음의 시작? 로마 제국의 지배

## #3. 구약에 나타나는 나라 / 이집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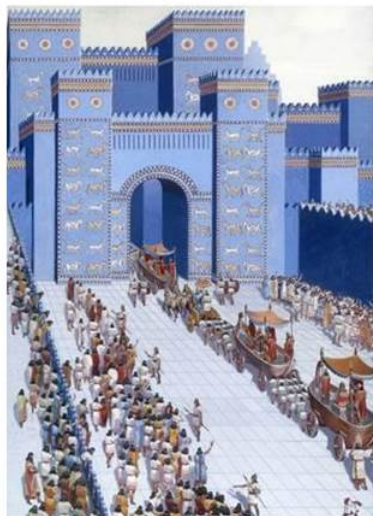
아브라함 때 - 애굽(이집트) 나라 성경에 등장  
 요셉 때의 이집트 - 오늘날까지 역사에 이름이 남는 큰 나라로 명성  
 출애굽기를 통해 나타나는 이집트 - 무섭고 위협적인 나라였다

## #4 구약에 나타나는 나라 / 앗수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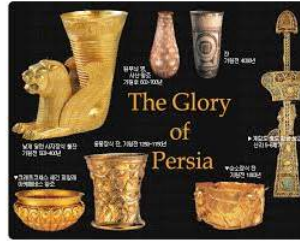
앗수르(앗시리아) -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고, 넓힘  
 당시 고대 근동 전체를 벌벌 떨게 했던 나라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두려워 함 (북이스라엘 멸망)

## #5 구약에 나타나는 나라 / 바벨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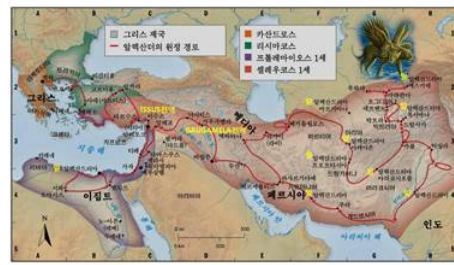
놀라운 속도로 세력을 키움  
 앗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왕국 유다를 손에 넣음  
 페르시아에 멸망

## #6. 구약에 나타나는 나라 / 페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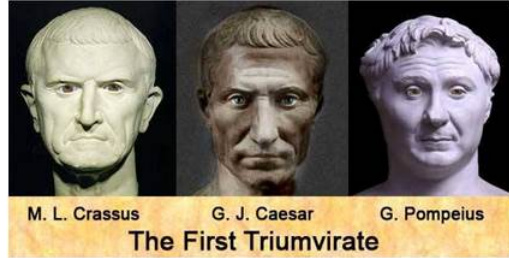
페르시아는 세력을 점점 키워서 그리스를 공격  
작은 도시국가들의 예상 외의 선전 → 그리스의 승리(마라톤 전투)  
페르시아의 국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

## #7. 헬라 제국의 등장



**알렉산더 대왕**(20세 즉위)의 정복의 꿈 /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꿈  
아버지 필리포스 2세, 마케도니아의 왕, 금광 발견으로 부자(크레니데스),  
대나무 전법으로 그리스 전체를 점령, 젊은 나이에 죽음  
“세상은 넓고 전세계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형제다” 세계동포주의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 → 이집트 까지 점령 => 헬라 문화의 전도자  
32세에 열병으로 사망, 제국은 네명의 장수에 의해 나뉘어져 다스림  
**로마의 등장**

## #8. 로마제국



BC 8경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 / 원로원 정치  
 카르타고 (현, 북아프리카)와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대국으로 성장하는 기회  
 카르타고-땅이 기름지고 매우 풍요로운 곳. 엄청난 배상금 받음,  
 율리우스 카이사르(줄리우스 시저)의 등장, 삼두정치(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갈리아 지방 총독으로 파견-갈리아 전쟁 → 프랑스, 유럽 전체와 영국을 로마에 복속시키고, 고대 근동을 포함 동방지역까지 로마에 포함(이스라엘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감)

## #9. 거대 제국이 된 로마



제국의 효과적 통치를 위해 황제 제도의 필요성 제기(카이사르)  
 → 원로원의 반대, 카이사르 56세에 암살  
 →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됨  
 → 녹2 가이사 아우구스도(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호적명령(베들레헴 행)  
 → 로마의 화폐-오늘날 화폐의 모형-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얼굴을 새김  
 → 거대한 로마 제국민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 시험 사건

## #10.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질문하다 →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Yes → 유대인들 실망, 세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  
 No → 로마의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 곤란해짐  
 예수님의 대답 → "동전을 보여 다오.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황제의 얼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

## #11. 로마와 신약시대의 관계



로마와 신약시대의 관계 :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예) 예수님의 재판 - 빌라도 총독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재판 →항소 하여 로마로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 정책으로 희생  
 에돔 사람 헤롯을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 참고 문헌

### 외국어 서적

J. Otis and Gail Ledbetter and Jim and Janet Weidmann, *Spiritual Milestones, A Guide to Celebrating Your Child's Spiritual Passages*. Colorado Springs : Cook, 2001.

Lois Tverberg, *Reading the Bible with Rabbi Jesus: How a Jewish Perspective Can Transform Your Understanding* . Grand Rapids, MI: Baker Publishing Group, 2018. Kindle Edition, Location 2203.

Ann Spangler and Lois Tverberg, *Sitting at the feet of Rabbi Jesus: How the Jewishness of Jesus Can Transform Your Faith*.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8.

### 번역서적

베스 에딩턴 휴잇, *빨려드는 어린이 설교*. 이은영 번역. 서울: 좋은 씨앗, 2008.

리차드 H. 콕스, *뇌는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김창훈 번역. 서울: Korean Edition, 2014.

루스 살로, *유대인의 유아교육*. 차경미 번역. 서울: 예지원, 1983.

프란츠 하이켈하인, *로마서*. 김덕수 번역. 서울: 현대지성사. 1999.

아놀드 B. 로드스, *통독을 위한 성서해설*. 문희석, 황성규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7.

월리스턴 워커, *기독교회사*. 송인설 번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도널드 W. 맬컬로우. *하찮아진 하나님?*. 박소영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데이비드 웰스, *거룩하신 하나님*.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가와시마 류타, 가와시마 히데코, *충명한 두뇌를 가진 아이 평범한 두뇌를 가진 아이*. 경기도: 사고나무, 2007.

### 한국어 서적

강정식, *캐릭터 설교*. 서울: (주)넥서스, 2012.

김형익,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박은규, *오래 기억되는 설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이연길, *이야기설교학*. 서울: 쿼란, 2003.

이영제, *바이블웨이*. 경기도: 컴퓨터선교회, 2013.

조병호, *통 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7.

조병호, *어린이 성경 통독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09.

조병호, *성경 통독과 통(通)신학*. 서울: 통독원, 2008.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조병호, *어린이 통성경*. 서울: 통독원, 2009.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장화선, 김난예, *기독교 아동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8.

###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기독 타임즈 (403호) 6면 하단 기사.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제91호*, 2017.

김영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제94호*, 2018.

강문규,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교육 수업에 있어서 이적 기사에 대한 설명 이해-  
마가복음2:1-12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치유 이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65호*, 2009.

#### 웹사이트

<http://www.chemic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4>.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83>.

<https://www.freebibleimages.org/stories/?contributor=sweet>.

김창석, <http://www.hani.co.kr/arti/society/shgooling/430856.htm> ] .

## VITA

## PERSONAL DATA

Full Name: Youngsuk Nam

Place and Date of Birth: Jinan, South Korea, February, 16, 1968

Parent`s Names: Jeongwoo Nam and Jungim Moon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Daeseong Girls' High School</b> 20 Daesung 2-gil, D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0, 1986
Collegiate: <b>Daejeon Theological University</b> 41 Hannam-ro, Daedeok-gu, Daejeon, Republic of Korea	B.A	Feb 11, 2010
Graduate: <b>Daejeon Theological University &amp; Seminary</b> 41 Hannam-ro, Daedeok-gu, Daejeon, Republic of Korea	M.div	Feb 15, 2013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Youngsuk Nam

Name typed

March 12, 2021

Date